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2003. 2

연 구 위 원	오 승 현
연 구 위 원	송 치 승
연 구 원	유 윤 주
연 구 원	박 연 정

한 국 증 권 연 구 원

< 목 차 >

I. 실물경제 동향	1
1. 총수요	1
가. 소비	2
나. 투자	4
다. 수출입	5
2. 생산 및 재고	10
3. 임금 및 물가	11
4. 경기변동 및 추이	15
가. 경기변동지수	15
나. 개별 산업총괄	18
다. 개별산업 현황	20

Ⅱ. 금융시장 동향25

1. 자금수급 동향	25
가. 통화량	25
나. 수신 동향	27
다. 자금흐름	30
2. 외환시장 동향	34
가. 외화자금 동향	34
나. 환율	38
3. 채권시장 동향	41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47

1. 세계경제 및 증시 동향	47
2. 미국경제 및 증시 동향	50
3. 유럽경제 및 증시 동향	52
4. 일본경제와 증시 동향	55
5. 아시아경제와 증시 동향	57
6. 유가	60

IV. 주식시장 동향61

1. 지수 동향61

2. 거래 동향63

가. 거래소63

나. KOSDAQ67

3. 기업의 경영성과71

가. 수익성71

나. 재무구조75

다. 성장성77

4. 향후 증시 영향요인78

<부 록> 증권시장 일지81

참 고 문 헌107

< 표 목 차 >

<표 I - 1> 도소매판매 및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가율	3
<표 I - 2> 수출입 실적 및 전망(잠정)	5
<표 I - 3> 2001~2002년간 주요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6
<표 I - 4> 주요 수출품목 및 비용	7
<표 I - 5> 소득교역조건 추이	9
<표 I - 6> 분기별 생산·재고·평균가동률 변화	11
<표 I - 7> 임금총액(누계평균) 상승률 추이	12
<표 I - 8> 총근로시간(누계평균) 증감률 추이	12
<표 I - 9> 부문별 연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13
<표 I -10> 경제성장 전망	16
<표 I -11> 주요 산업의 2003년 전망	18
<표 II - 1> 전체 채권발행 규모	41
<표 II - 2> 전체채권 발행잔액	43
<표 II - 3> 채권종류별 거래 동향	45
<표 III -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7
<표 III - 2> 9·11 테러 이후 주요국 주가지수 수익률	49
<표 III - 3>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50
<표 III - 4> 유로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53
<표 III - 5>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55
<표 III - 6>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57
<표 IV - 1> 거래소시장 거래지표	64

<표 IV- 2> 거래소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65
<표 IV- 3> 코스닥시장 거래지표	68
<표 IV- 4>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69
<표 IV- 5> 상장 제조업체 수익성 추이	71
<표 IV- 6> 상장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구간별 업체수 구성비 ...	72
<표 IV- 7>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수익성 관련지표	73
<표 IV- 8> 상장 건설업체 및 도·소매업체 수익성지표	74
<표 IV- 9> 상장 제조업체 재무구조 관련비율 추이	75
<표 IV-10>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재무구조 관련지표	76
<표 IV-11>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성장성 지표 추이	77
<표 IV-12> 각국의 PER 비교	79

< 그 립 목 차 >

<그림 I - 1> 국내총생산 변동요인	2
<그림 I - 2> 투자 증가율	4
<그림 I - 3> 수출입 증가율	6
<그림 I - 4> 수출입단가 및 교역조건 증가율	9
<그림 I - 5> 생산증가율 · 재고증가율 · 평균가동률	10
<그림 I - 6> 물가상승률	14
<그림 I - 7> 경기변동지수 및 종합경기BSI(전망)	15
<그림 I - 8>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설비투자추계 증가율 추이	17
<그림 I - 9> 반도체산업 동향	20
<그림 I -10> 자동차산업 동향	21
<그림 I -11> 정보통신산업 동향	22
<그림 I -12> 조선산업 동향	23
<그림 II - 1> 통화량 추이	27
<그림 II - 2> 주요 금융기관 수신 동향	28
<그림 II - 3> 투신사 설정잔고 동향	29
<그림 II - 4> 가계대출 추이	31
<그림 II - 5> 기업대출(신탁포함) 추이	32
<그림 II - 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33
<그림 II - 7> 국제수지 및 수출입 추이	35
<그림 II - 8> 외환보유액 및 대외채무 현황	38
<그림 II - 9> 원/달러 및 엔/달러환율 추이	40

<그림 II-10> 전체 채권발행 규모	41
<그림 II-11> 전체 채권발행잔액	43
<그림 II-12> 채권 종류별 거래 동향	44
<그림 II-13> 단기 금리 및 채권수익률 추이	46
<그림 III- 1>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 추이	51
<그림 III- 2> 유럽 주요 주가지수 추이	54
<그림 III- 3> 니케이225 주가지수 추이	56
<그림 III- 4> 중국 및 홍콩의 주가지수 추이	58
<그림 III- 5>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주가지수 추이	59
<그림 III- 6> 대만과 싱가포르의 주가지수 추이	59
<그림 III- 7> 국제유가(서부텍사스 중질유) 추이	60
<그림 IV- 1> 종합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	61
<그림 IV- 2> 종합주가지수와 월별 순매수 최고부문	66
<그림 IV- 3> 2002년 중 일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와 주가상승률 ..	67
<그림 IV- 4> 종합주가지수와 월별 순매수 최고부문	70
<그림 IV- 5> 상장제조업체 이자보상비율 분포	72
<그림 IV- 6> 상장 제조업체(1,070개) 부채비율 분포 추이	75

I. 실물경제 동향

1. 총수요

○ 2002년 초반에는 소비와 건설 투자에 의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중반 이후 수출물량 증대로 완만한 경제 성장

상반기에는 저금리 기조, 특소세 인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

2/4분기 이후 미국의 기업회계 부정 파문, 미·이라크 전쟁 우려 등의 해외요인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및 소비심리 저하, 건설 경기 둔화 등의 국내요인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침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 주도로 산업생산 활동 유지

설비투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낮은 수준 유지

<그림 1-1> 국내총생산 변동요인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웹사이트.

가. 소비

- 민간소비는 2002년 상반기 경기회복을 주도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

2002년 높은 임금상승(10월 전년동기대비 10.5%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가는 향후에도 소비신장 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 문제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2002년 말 이후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8.4%, 2분기 7.6%, 3분기 6.1%, 4분기 5.8%(한은 예측치)를 기록

I. 실물경제 동향

2002년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조정과 행정수도 이전 등이 맞물려
2002년 말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소비수요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도소매판매지수는 2002년 상반기에 전월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3분기 들어 둔화되었으나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11월 중 도소매판매는 도매, 소매, 자동차판매의 전반적인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표 1 -1> 도소매판매 및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가율

(전년동월(기)비, 단위 : %)

구 분 년/분기	2001년			2002년					
	연간	4/4	11월	1/4	2/4	3/4	9월	10월	11월
○도 소 매 판 매	4.6	6.5	6.6	8.0	6.4	5.1	2.9	7.0	4.8
· 도 매 업	4.8	4.8	5.0	5.9	5.2	2.6	0.7	5.1	3.7
· 소 매 업	4.2	6.2	6.7	6.8	6.5	5.6	4.8	6.1	4.5
· 자동차 및 연료	5.9	15.9	14.2	21.0	12.0	14.5	6.6	17.1	9.9
•S.A.전월(기)비	-	1.2	0.9	2.7	1.1	0.5	0.1	0.2	0.3
○내 수 용 소 비 재 출 하	2.9	4.9	4.7	11.8	7.0	4.4	-0.9	11.0	7.7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각호.

나. 투자

○ 2002년 투자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미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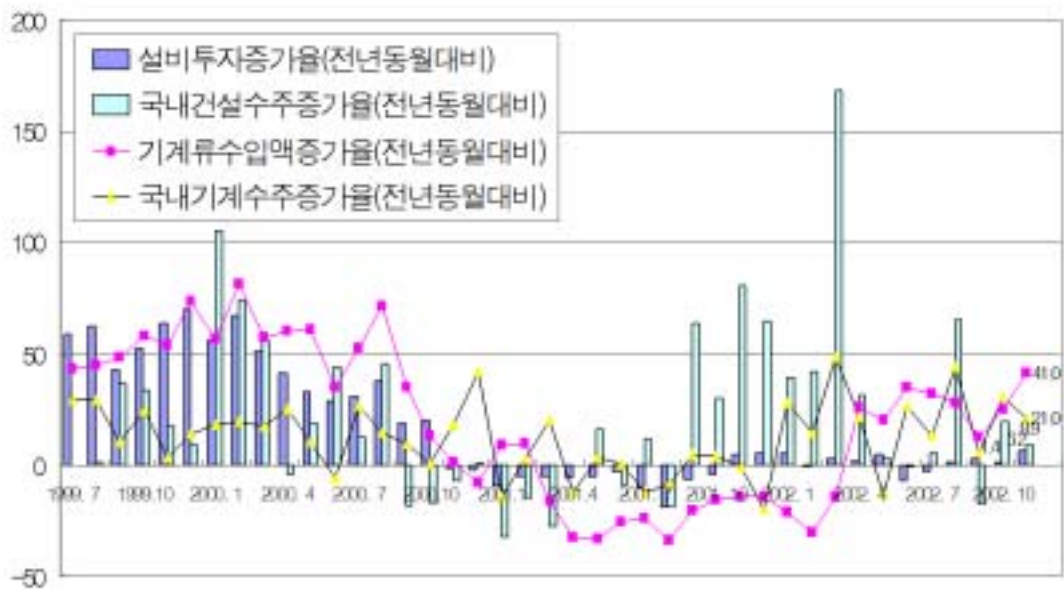
2002년 상반기투자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국내 건설수주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후반기에 들어 기계류 수입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2000년 10월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

- 2002년 11월 들어 설비투자가 통신기기, 특수산업용 기계, 전기기기, 및 장치 부문에서 살아나 전년동월대비 6.2% 증가를 기록

<그림 1 -2> 투자 증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각호.

다. 수출입

○ 2002년 수출입 실적(잠정)

수출은 1,628억불, 수입은 1,521억불을 기록하여 108억불 흑자 기록

- 전년대비 수입은 7.7% 증가한 반면 수출은 8.2% 증가
- 1988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정부수립 이후 누계치로 볼 때 순무역 흑자국가로 전환

<표 1 -2> 수출입 실적 및 전망(잠정)

(통관기준, 단위 : 억불, %)

구 분 \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전망
수 출	1,504.4 (-12.7)	1,628.2 (8.2)	1,750 (7.5)
수 입	1,411.0 (-12.1)	1,520.2 (7.7)	1,670 (9.9)
무 역 수 지	93.4	108.0	80

자료 : 산업자원부, 「2002년 수출입 실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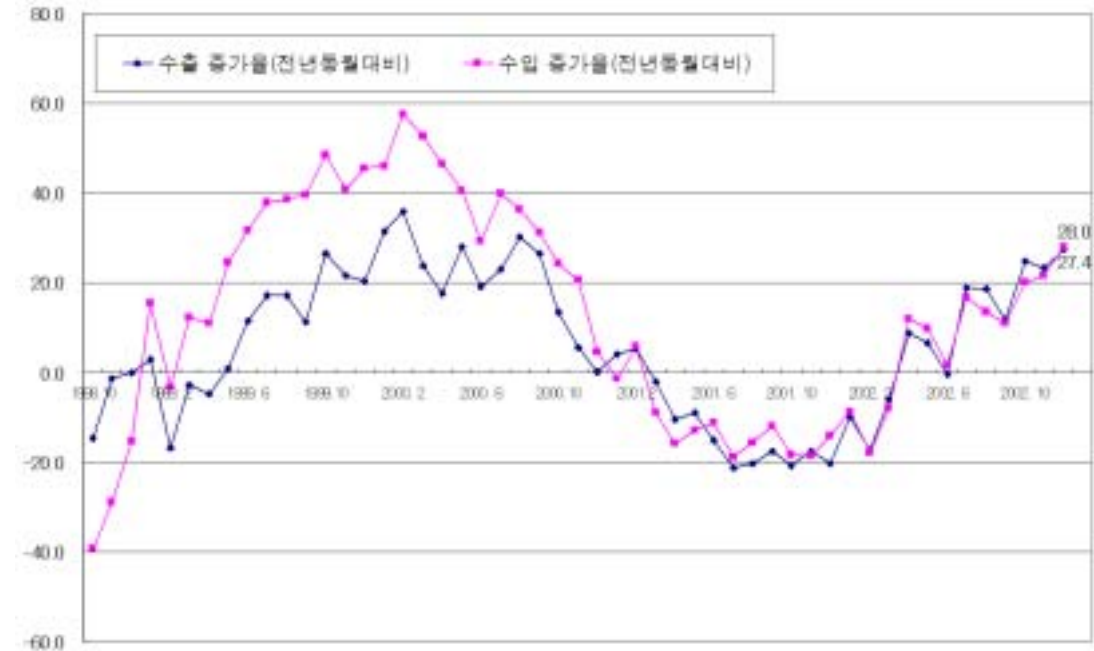
○ 2002년 수출입의 주요특징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두드러진 수출 증가세를 보여 내수와 투자 부진을 상쇄하였음

-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 시현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단위 : %)



자료 : 산업자원부, 「2002년 수출입 실적 평가」.

수출시장은 투자와 연계된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아세안, EU의 비중도 상승한 반면 일본, 중남미의 비중은 하락하였음

-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

<표 1-3> 2001~2002년간 주요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비중, %)

구 분	미국	중국	EU	아세안	일본	중남미
2001년	20.7	12.1	13.0	10.9	11.0	6.5
2002.1~12.20	20.1	14.6	13.3	11.4	9.5	5.5

자료 : 산업자원부, 「2002년 수출입실적 평가」.

I. 실물경제 동향

품목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무선통신기기(37.5%), 반도체(16.4%), 컴퓨터(15.2%) 등 IT제품이 상위를 차지하였음

-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급증

<표 I -4> 주요 수출품목 및 비용

(단위 : 비중, %)

순위	1990		1995		2000		2001		2002추정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1	의 류	11.7	반도체	14.1	반도체	15.1	반도체	9.5	반도체	10.3
2	반도체	7.0	자동차	6.7	컴퓨터	8.5	자동차	8.9	자동차	9.0
3	신 발	6.6	선 박	4.5	자동차	7.7	컴퓨터	7.5	무선통신 기기	8.3
4	영상기기	5.6	인 조 장 섬유직물	4.3	석 유 제품	5.3	선 박	6.6	컴퓨터	8.1
5	선 박	4.4	영상기기	3.9	선 박	4.9	무선통신 기기	6.6	선 박	6.3
소계		35.3		33.5		41.5		39.1		42.0

자료 : 산업자원부, 「2002년 수출입 실적 평가」.

○ 2002년 수출호조의 주요 요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품질향상, 경영혁신 노력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1년 상반기 6.9%에서 2002년 상반기 7.8%로 증가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반사효과

월드컵과 연계된 마케팅 성공이 수출로 연결되었음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2002년 중 순상품교역조건($100 \times \text{수출단가지수} / \text{수입단가지수}$)

2002년 연초에는 유가하락과 반도체 가격 등 수출 주종 품목이 상승하여 순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상승으로 다시 악화되었음

전년동기대비 수입단가 및 수출단가 증가율이 1월에 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후 계속 회복추세에 있으며, 유가상승과 소비재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2002년 10월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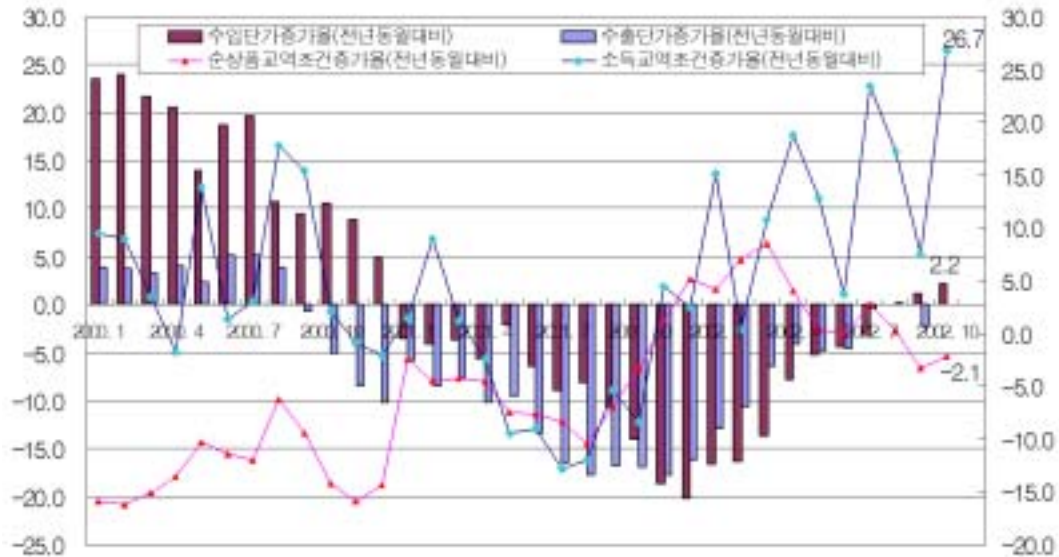
○ 2002년 중 소득교역조건($\text{순상품교역조건지수} \times \text{수출물량지수} / 100$)

2002년 중 소득교역조건은 수출물량지수(10월 중 전년동월대비 29.4% 증가)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10월 중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7% 증가

<그림 I -4> 수출입단가 및 교역조건 증가율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웹사이트.

<표 I -5> 소득교역조건 추이

(단위 : 100, %)

년/분기 지수	2001					2002			
	1/4	2/4	3/4	4/4	연간	1/4	2/4r	3/4	10
소득교역 조건지수	95.5 (3.9) ^{a)}	96.2 (-7.1)	93.2 (-10.0)	100.4 (-0.3)	96.2 (-3.8)	103.5 (8.4)	107.6 (11.9)	107.8 (15.7)	119.5 (26.7)
순 상 품 교역조건지수	97.6 (-3.6)	95.8 (-6.6)	92.8 (-8.4)	95.6 (1.2)	95.5 (-4.5)	103.7 (6.3)	97.4 (1.7)	92.6 (-0.2)	90.1 (-2.1)
수출물량 지수	97.8 (7.7)	100.4 (-0.6)	100.4 (-1.9)	105.0 (-1.5)	100.7 (0.7)	99.8 (2.0)	110.5 (10.1)	116.4 (15.9)	132.6 (29.4)

a) ()내는 전년동월(기)대부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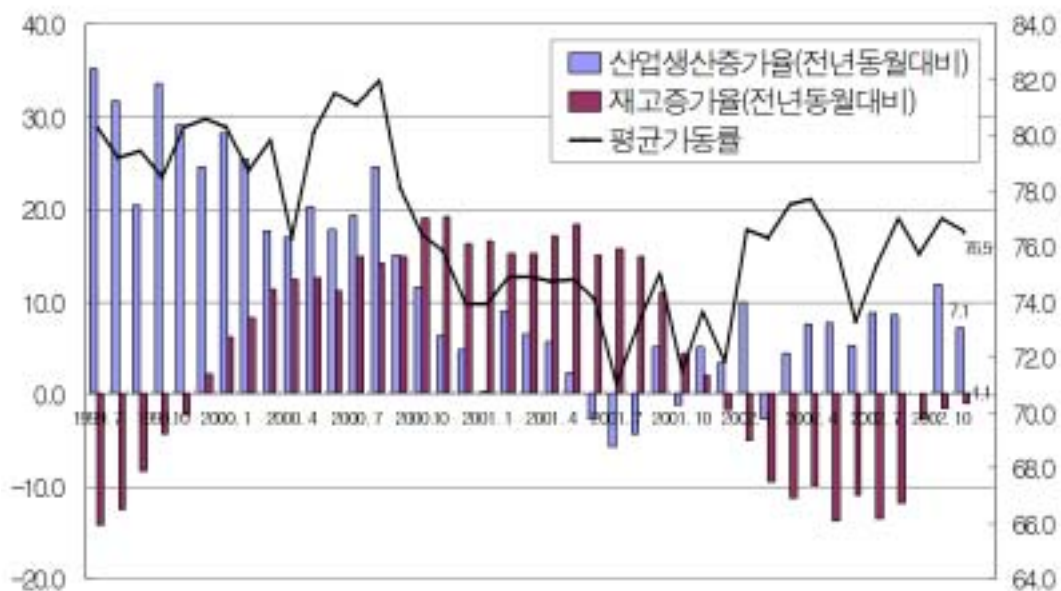
2. 생산 및 재고

- 2002년은 2001년에 비해 생산증가율 및 평균가동률이 호전되었으며, 재고가 감소되었음

2002년 평균가동률은 해외 주요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1년보다 높아진 76% 내외를 기록

<그림 1 -5> 생산증가율 · 재고증가율 · 평균가동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각호.

<표 I -6> 분기별 생산·재고·평균가동률 변화

(2000=100, 단위 : %)

지수 년/분기	2001년			2002년			
	연간	4/4	11월	1/4	2/4	3/4	11월
산업생산지수	101.3	105.7	108.2	103.6	109.3	106.1	115.9
전년동월(기)비	1.3	1.7	4.2	6.8	7.5	5.3	7.1
전 월(기) 비	-	1.7	0.1	3.2	1.4	0.5	0.7
재고지수	105.1	105.1	104.9	101.8	102.9	102.6	103.7
전년동월(기)비	0.5	0.5	1.5	-8.4	-4.9	-2.7	-1.1
전 월(기) 비	-	-1.9	-0.7	-4.3	2.5	1.1	-0.9
제조업가동률	95.7	95.2	98.5	94.5	100.3	95.6	101.1
전년동월(기)비	-4.3	-6.0	-3.1	0.7	1.9	0.3	2.6
전 월(기) 비	-	-2.1	0.0	4.8	-0.1	-0.7	-0.6
평 균 가 동 률	75.1	73.5	74.5	77.0	76.9	76.4	76.5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3. 임금 및 물가

- 2002년 10월누계 월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903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723천원에 비하여 10.5%(180천원) 상승

10월 중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증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1.9%, 도·소매 숙박업 11.1%, 제조업 10.5%,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10.1%를 각각 기록

사업체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 -7> 임금총액(누계평균) 상승률 추이

(단위 : %)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2	-7.6 (11.5) ^{a)}	7.7 (11.6)	8.4 (11.9)	9.4 (11.9)	9.6 (11.9)	9.7 (12.0)	9.9 (11.9)	10.2 (11.8)	10.2 (11.8)	10.5 (11.9)		
2001	19.8 (7.4)	8.6 (7.4)	7.8 (7.5)	7.0 (7.5)	6.5 (7.2)	5.9 (7.0)	5.8 (6.8)	5.2 (6.6)	5.3 (6.5)	5.2 (6.4)	5.2 (6.5)	5.1 (6.3)

a) ()내는 전년동기대비 정액급여 상승률임

자료 : 노동부, 「2002년 10월 중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 이동 동향」.

○ 2002년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전년동기대비 실질임금은 1,783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656천원에 비하여 7.7% 상승

○ 큰 폭의 실질임금 상승이 있었음에도 2002년 10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표 1 -8> 총근로시간(누계평균) 증감률 추이

(단위 : %)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2	8.2 (-17.5) ^{a)}	-2.1 (-20.9)	-2.6 (-18.8)	-1.6 (-17.4)	-0.8 (-15.7)	-1.6 (-14.4)	-1.5 (-13.9)	-1.6 (-13.1)	-2.2 (-13.1)	-1.4 (-12.2)		
2001	-8.4 (-7.9)	-3.5 (-6.2)	-3.0 (-7.4)	-2.1 (-8.2)	-1.7 (-10.6)	-1.6 (-11.5)	-1.4 (-11.5)	-1.4 (-12.3)	-0.6 (-12.0)	-1.1 (-12.8)	-1.1 (-12.8)	-1.1 (-12.8)

a) ()내는 전년동기대비 초과근로시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2002년 10월 중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 이동 동향」.

○ 2002년 중 전년동월대비 물가지수의 추세는 연초에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02년말에 이르러서는 주요 산유국(미·이라크전쟁 가능성, 베네수엘라 총파업)의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200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며, 2002년 부문별 소비자물가 상승은 아래와 같음

<표 I -9> 부문별 연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단위 : %, %p)

구분 년도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00	2.3	1.9	1.6	-0.5	7.1	2.0
2001	4.1	6.3	2.6	4.1	7.5	3.1
2002	2.7	6.2	1.7	5.8	-1.3	3.7
(기여도)	-	(0.69)	(0.55)	(0.75)	(-0.21)	(0.97)

자료 : 통계청, 「2002년 연간 및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세계경기침체로 공업제품의 수요하락과 경쟁심화로
공업제품 가격이 전년비 1.7% 상승에 머물음

공공서비스는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LM 통화료가 -10.4%,
이동전화료가 -6.4%를 기록하여 전년비 -1.3% 증가

농축산물은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 등으로 전년비 6.2%가 상승했
고, 집세는 5.8%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2002년 평균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1.9%에 비해 0.3p 낮은 1.6% 상승
2002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농림수산물(4.5%)이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공산품(1.1%)이 안정세를
보인데다 전력·수도·가스(-2.3%)도 내림세를 나타내며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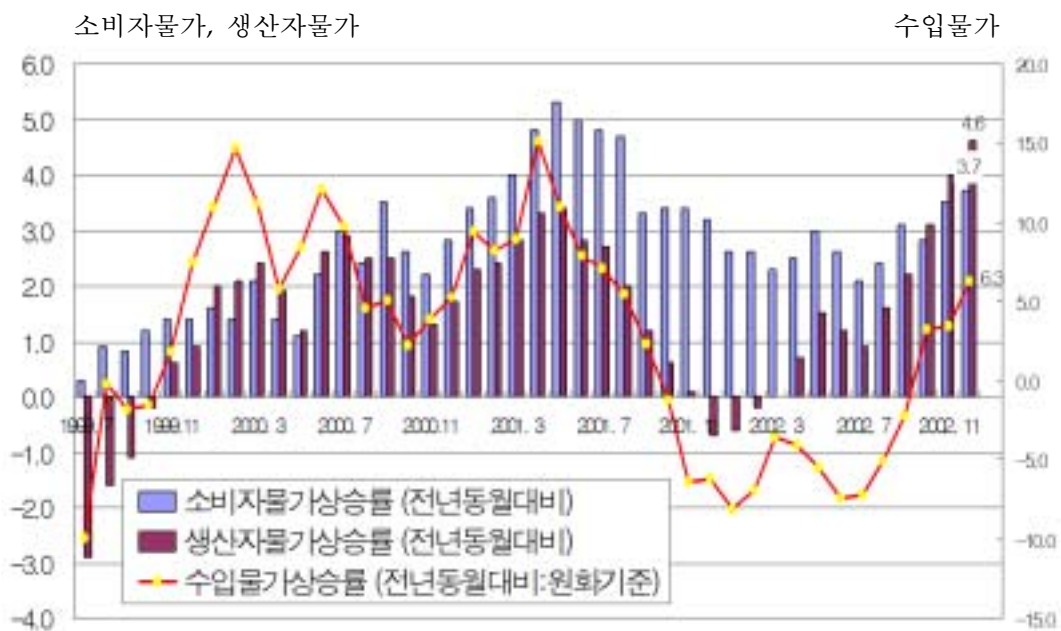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2002년 평균 수입물가는 대미달러 원화환율이 3%하락하고, 수요부진에 따른 국내외 업체간 경쟁 등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원자재(-3.1%), 자본재(-3.0%), 소비재(-5.3%)가 모두 내림세를 보여 전체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3.2% 하락

12월 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6.3% 상승

- 12월 중 수입물가 상승은 주로 국제 원유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

<그림 1 -6>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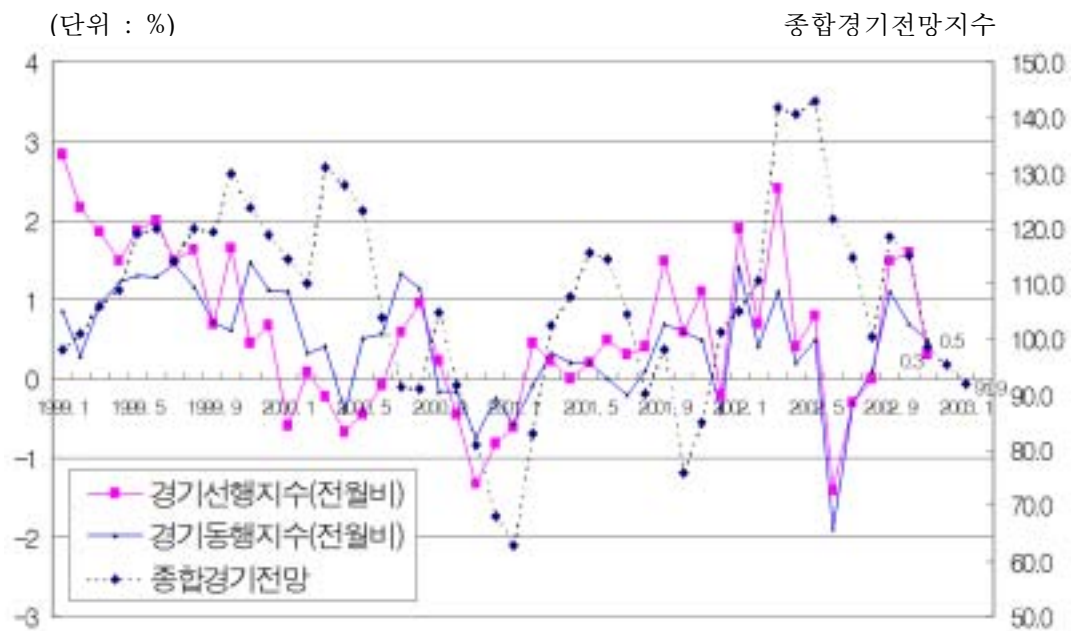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웹사이트.

4. 경기변동 및 추이

가. 경기변동지수

- 최근의 경기변동지수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기업 종합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여 지표상 경기둔화의 징후가 있음

<그림 I -7> 경기변동지수 및 종합경기BSI(전망)



자료 : 전경련, 「기업경기실사지수」, 각호,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각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11월 중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시멘트소비량, 생산자출하지수 등 8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증가

11월 중 경기선행지수는 중간재출하지수, 수출신용장 내도액 등 5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0.3% 증가

- 전년동월비는 0.6%p 감소

2003년 1월 중 기업 종합경기전망(91.9)이 다소 비관적으로 나온 것은 선진국 경기회복의 부진, 미·이라크전쟁 가능성,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변수들이 모두 불확실해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적 불안이 심화된 데에 기인

○ 한국은행의 2003년 중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표 I -10>과 같음

<표 I -10>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 분 \ 년/분기	2002							2003 ^예				
	1/4	2/4	3/4	4/4 ^예	상반	하반 ^예	연간 ^예	1/4	2/4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5.8	6.4	5.8	6.5	6.1	6.2	6.2	5.6	5.4	5.5	5.9	5.7
민간소비	8.4	7.6	6.1	5.8	8.0	6.0	7.0	4.6	5.1	4.9	5.8	5.3
설비투자	3.2	7.4	7.7	8.0	5.2	7.9	6.5	6.1	9.2	7.7	13.3	10.4
건설투자	10.1	3.9	-3.8	2.2	6.6	-0.6	2.6	2.1	2.3	2.2	2.7	2.5
상품수출	2.5	13.5	21.7	24.1	7.9	23.0	15.4	15.3	10.9	13.0	6.8	9.7
상품수입	3.9	19.8	22.1	20.8	11.5	21.4	16.5	10.7	9.5	10.1	11.9	11.0

자료 : 한국은행, 2002, 「2003년 경제전망」.

2003년 상반기중 경제는 수출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03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의 호전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높아져 성장률이 6%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들어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그동안 설비투자부진으로 생산능력은 정체한 결과 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증대

<그림 I -8> 설비투자조정압력^{a)} 및 설비투자추계 증가율 추이

(전년동원기대비, 단위 : %)

(단위 : %p)



a) 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2, 「2003년 경제전망」.

나. 개별 산업총괄¹⁾

○ 산업은행은 2002년 산업별 추계 및 2003년 산업별 전망을 <표 I-11>과 같이 보고 있음

<표 I -11> 주요 산업의 2003년 전망

구 분		단 위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철 강	생산	천M/T	51,520	5.0	51,685	0.3
	내수	"	43,620	14.0	43,455	△0.4
	수출	"	12,845	△8.5	13,195	2.7
석유화학	생산	천M/T	15,933	5.8	16,875	5.9
	내수	"	10,207	8.9	10,667	4.5
	수출	"	7,102	3.4	7,556	6.4
일반기계	생산	백만달러	33,939	4.4	36,020	6.1
	내수	"	34,512	6.0	36,820	6.7
	수출	"	11,795	6.4	12,900	9.4
정보통신 기 기	생산	10억원	54,085	26.5	59,062	9.2
	내수	"	35,924	24.6	38,557	7.3
	수출	백만달러	22,897	26.9	26,335	15.0
반 도 체	생산	백만달러	21,470	13.6	26,600	23.9
	내수	"	22,610	12.0	27,400	21.2
	수출	"	16,540	16.0	20,500	23.9
자 동 차	생산	천대	3,119	5.9	3,213	3.0
	내수	"	1,625	11.2	1,638	0.8
	수출	"	1,477	△1.6	1,596	8.1
조 선	생산	천수CGT	5,545	△35.9	3,940	△28.9
	내수	"	5,118	11.2	5,294	3.4
	수출	백만달러	8,209	32.0	8,082	△1.5

자료 : 산업은행, 2002, 「산은조사월보」, 12월호.

1) 산업은행, 2002, 「산은조사월보」, 12월, '2003년 전망과 과제'를 인용하였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IT산업의 수출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정체 내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

반도체는 세계 수요의 기술적 반등과 PC교체의 시작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출이 2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봄

정보통신기기는 OEM/ODM 수출의 확대, 국내 선도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세대 통신 시장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의 신수요 개척도 활발해져 전 산업 중에서 가장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자동차는 가계부문의 소비억제 심리로 내수는 물량기준으로 전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GM-대우의 본격생산에 따른 신 3강 체제가 구축되면서 내수시장을 둘러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봄

조선은 2000년 대량 수주 물량의 소화, 지속적인 공법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고가의 LNG선 인도 등에 따라 건조 및 수출은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신규수주는 세계 선박시장의 수급개선이 불투명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일반기계는 설비투자의 회복에 따른 기계류 수주증가로 생산과 내수가 전년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으며, 수출도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다. 개별산업 현황

○ 반도체

반도체산업은 2001년 4/4분기 이후 세계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 PC 등 세계 IT 경기의 호전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I -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4/4분기에 급격한 재고 감소가 있었으며, 2002년 11월 중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에 비해 3.6%증가한 반면에 재고지수는 소폭 하락에 단기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통계에 의하면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2001년 3/4분기에 64.2%까지 하락하였던 세계 반도체산업 가동률이 2001년 4/4분기 이후 반도체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3/4분기에는 86.3%로 크게 상승하였음

<그림 I -9> 반도체산업 동향^{a)}

(2000년=100)



a) 반도체 :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실리콘웨이퍼, 수정진동자 등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 자동차

2002년 내수부문 자동차판매는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음

- 2002년 8월까지 적용된 특소세율 인하가 고급 승용차로의 교체 수요의 선행구매를 상당폭 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부 금융업 종을 중심으로 한 주5일제 실시로 수요가 증가
- 2001년 12월 자동차 재고지수/생산지수 비율이 107.9% 였던 것이 2002년 11월에는 69.9%으로 크게 감소하여 단기적인 생산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그림 I -10> 자동차산업 동향^{a)}

(2000년=100)



a) 자동차 : 자동차용내연기관, 경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지프형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자동차KD세트,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장차.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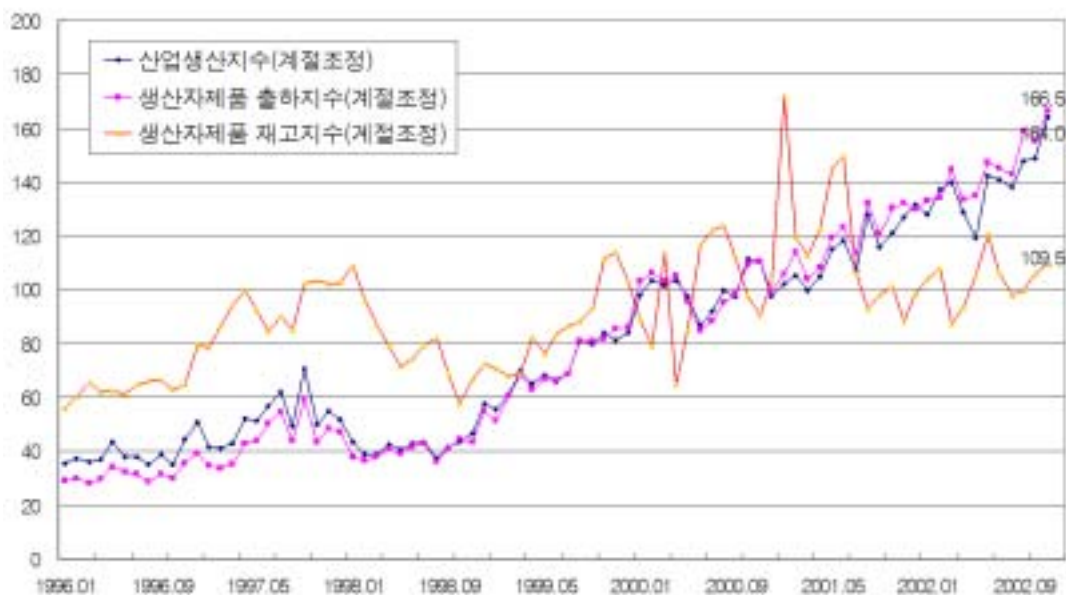
○ 정보통신

2002년 정보통신산업은 통신서비스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2001년에 크게 위축되었던 정보통신 제조부문이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양호한 성장을 보임

2001년 12월 재고지수/생산지수 비율이 74.7%였던 것이 2002년 11월에는 66.7%를 기록하여 재고비율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지수가 동기간에 131.6에서 164로 크게 높아졌음

<그림 I -11> 정보통신산업 동향^{a)}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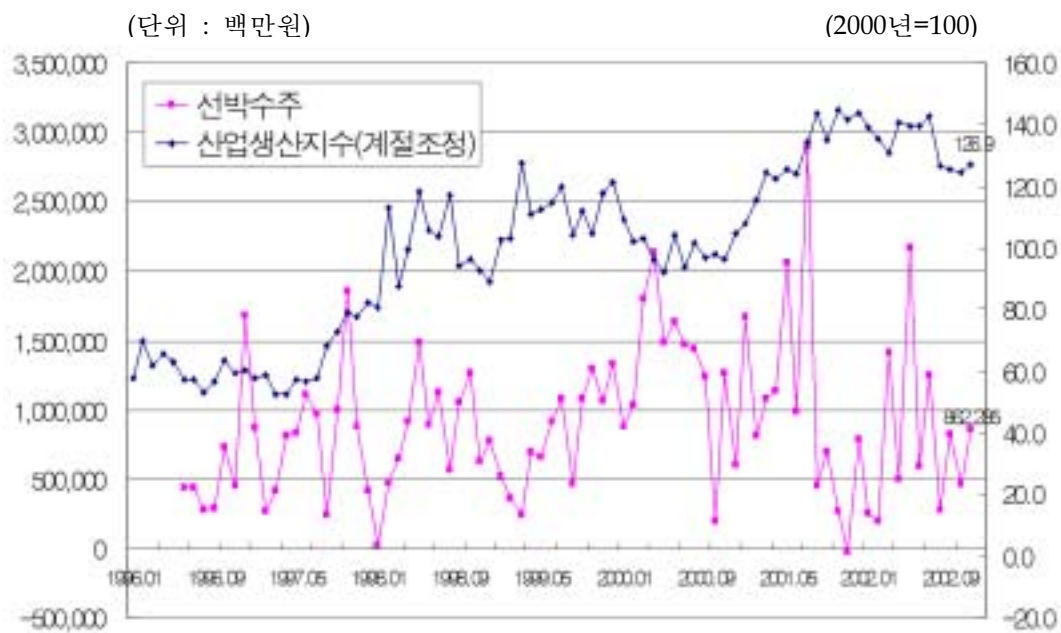
a) 정보통신 : 유선전화기, 휴대폰, 사설용전화교환기, 팩시밀리, 비디오도어폰, 휴대용전화기, 무선송수신기, 셋톱박스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 조선

2002년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최근 수년간 대량 발주와 세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생산 및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그림 I -12> 조선산업 동향^{a)}



a) 조선 : 철강유조선, 화물선, 특수선박(비상업용)
자료 : 통계청 웹사이트.

II. 금융시장 동향

1. 자금수급 동향

가. 통화량

○ 주요 통화지표는 M3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하락세

본원통화 증가율은 금년 1월~9월(15.7%) 4%이상 크게 상승²⁾하였으나 현재는 12.7%로 전년말대비 1.3% 하락

- 이는 1월~9월사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었으나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세로 전환, KT매각 대금 및 세금의 국고환수 등의 요인으로 점차 하락
- 하지만 시간차에 의해 아직까지 본원통화 증가율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11월부터 외국인 순매수 확대로 인한 해외 통화 유입으로 인한 해외 통화 유입으로 상승요인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M2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1.1% 하락한 12.7%(11월말 기준)

-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민간신용확대 등에 의해 1/4분기에서 2/4분기로 0.2%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가계대출 급증세가 완화되며 3/4분기에는 2.6% 감소

MCT 증가율은 전년말대비 1.2% 하락한 11.1%(11월말 기준)

2) 본원통화 증가율은 전년과 금년의 설 시기 차이로 현금통화 증가율이 전월 14%에서 7.1%로 급락하였다가 2월에는 20.3%로 급등

- M2 증가와 단기자산 수요증가에 따른 CD 순발행 지속으로 1/4분기에서 2/4분기에 0.3%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CD 순발행 둔화에 다 금전신탁 수신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3/4분기에 1.5% 하락

M3 증가율은 연초대비 0.9% 상승한 12.5%(11월말 기준)

- 이는 은행의 저축성예금 및 투신권 MMF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시중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데 기인

이와 같은 통화지표간에 상반된 움직임은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제 2금융권과 단기수신으로 이동, 은행예금으로의 시중자금 집중현상을 완화

○ 콜금리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요인 불안으로 콜금리는 한차례 인상된 4.25%³⁾의 수준 유지

저금리를 배경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여 총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인해 5월에 콜금리 25bp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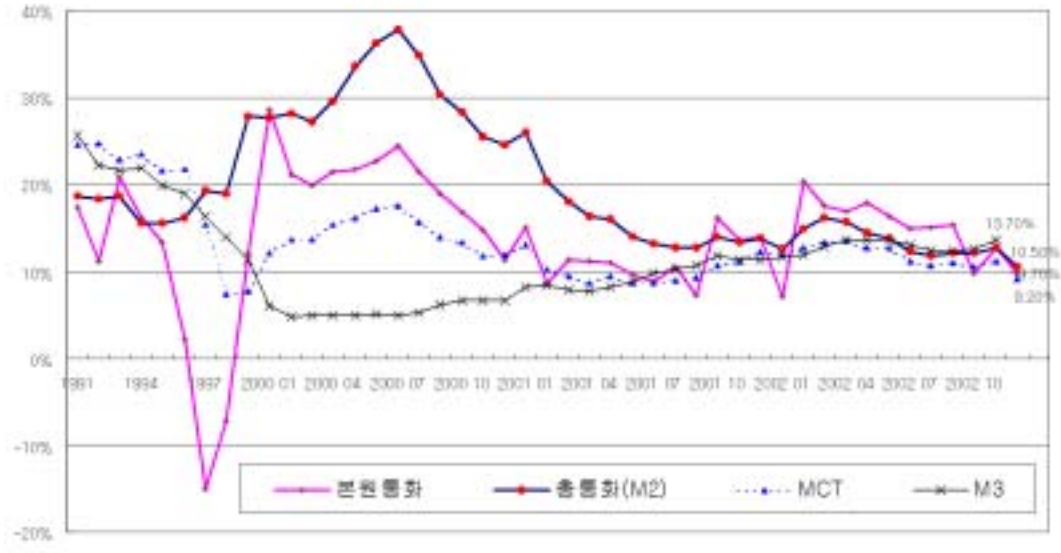
하반기에도 시중의 과잉유동성, 부동산 경기 안정 및 가계대출 급증세를 흡수하기 위한 콜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현 콜금리를 지속

- 9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상승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과 함께 실물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상승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 지연 및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세계증시 동반 하락

3) 한은에서 5월 7일 4%에서 4.25%로 한차례 조정

<그림 II -1> 통화량 추이^{a)}

(전년동기대비, 단위 : %)



a)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지준예치금

M2 = M1 + 저축성예금 + 거주자의화예금

MCT = M2 + CD + 금전신탁

M3 = M2 + 비통화금융기관예수금 + 금융채발행 + 상업어음일반매출
+ CD발행 + RP매도 + 표지어음일반매출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나. 수신 동향

1) 금융기관 수신 동향

- 전년대비 금년의 은행, 투신의 수신은 증가하였는데 반해 금전신탁과 증권시장의 고객예탁금은 감소

은행수신⁴⁾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 10월말 기준 687.2조원으로 전년말대비 68.6조원 증가하였고 이 중 상반기 증가액이 49.8조원

4) 예금은행기준, 은행수신=예금+금전신탁+시장형상품(CD+RP+표지어음)+금융채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이는 상반기 콜금리 인상⁵⁾에 의한 은행의 시장형 상품(CD, RP, 표지어음) 증가와 금융채의 증가폭이 발행여건 호조로 크게 확대⁶⁾된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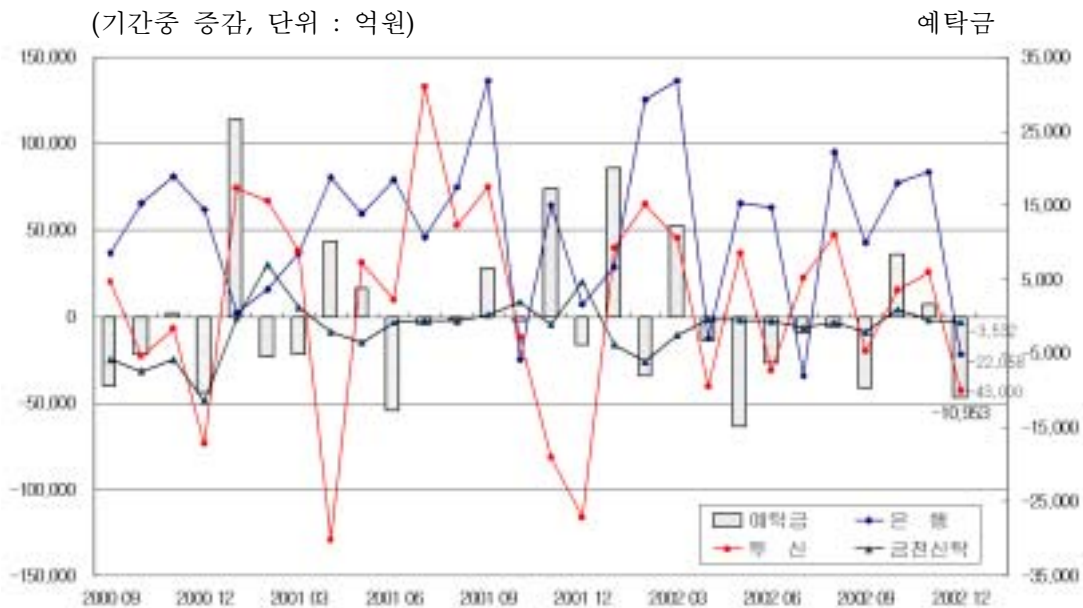
투신사수신 증가는 단기시장 금리의 상승,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호조 및 MMF 증가에 기인

금전신탁은 노후금전신탁 만기도래와 맞물려 0.4조원 가량 감소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증권시장 고객예탁금은 12월중 1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초에 2조원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

<그림 II -2> 주요 금융기관 수신 동향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5) 2002년 5월: 4.0%→4.25%

6) 시장형 상품(2001년 하반기: -6조 1,970억원→2002년 상반기: +15조 3,480억원), 금융채(2001년 하반기: +2조 8,090억원→2002년 상반기: +9조 3,310억원)

2) 투신사 설정잔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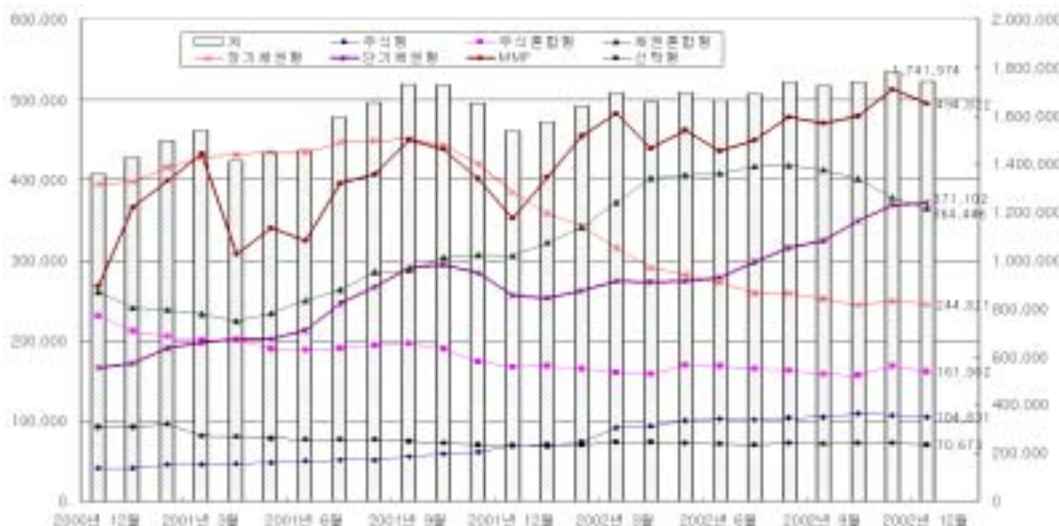
○ 투신사 전체 수탁고는 연중 꾸준히 증가하여 연말기준 174.2조원으로 연초대비 16.7조원 증가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지속되면서 MMF, 단기 채권형 수익증권 수탁고 증가

- 현재 전체 수탁고 중 단기성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
- 단기성 자금 수탁고는 연말 기준 86.6조원으로 연초대비 20.8조원 증가
상반기 주식시장의 호조 속에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증가하였다가 하반기 주식시장 불안으로 부진
- 현재 주식형⁷⁾수탁고는 27.7조원으로 연초대비 3.1조원 감소
신탁형 수탁고는 연말 기준 7.0조원으로 연초대비 0.04조원 증가
- 총 7.0조원 중 한투 3.2조원, 대투 3.2조원, 동양 0.7조원⁸⁾

<그림 II -3> 투신사 설정잔고 동향

(단위 : 억원)



자료 : 투자신탁협회, 「월별 설정액 추이」, 각호.

7)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합계

8)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수치와 비교했을 때 합산이 안맞다.

다. 자금흐름

1) 간접금융 현황(은행대출)

- 은행대출 중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부실우려로 인한 여신축소로 인해 최근들어 급격한 감소
11월, 12월 중 가계대출 증가는 각각 2.1조원, 2.3조원으로 둔화추세 지속
이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강화, 가계대출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강화 등에 기인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2/4분기 결산부터 상향조정
 -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따라 3/4분기부터 주택담보비율(LTV: Loan to Value)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개인 신용평가를 의무화

II. 금융시장 동향

○ 하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자산중 가계부분이 기업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비율(coverage ratio)은 가계수치가 119%인 반면 기업수치는 86%(2002년 6월말 기준)⁹⁾

<그림 II -4> 가계대출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9) 자료 : 금융연구원, 2003,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민주당 주최 정책 심포지엄 자료, 1, 14.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기업대출과 관련한 은행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현상

해외 경기회복 부진 등에 의한 대기업의 투자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2002년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은행에서 상환가능

전년동월대비 기업대출은 대기업은 1.4조원 감소, 중소기업은 0.8조원 증가로 양극화 현상도 보다 심화

-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신용도가 비교적 좋은 대기업들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함
- 매년 연말에는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순상환을 기록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상환한데 기인(전월대비 4.0조원 감소)

<그림 II -5> 기업대출(신탁포함) 추이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2) 직접금융 현황(기업의 자금조달)

○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은 전년대비 약 11조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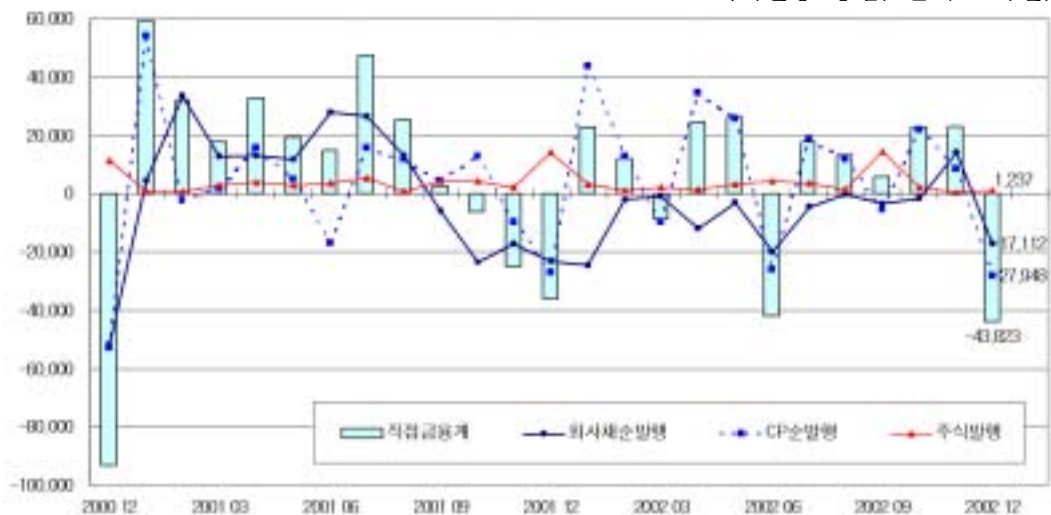
회사채발행이 부진한 가운데 기업대출 및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의 감소로 CP발행을 통한 단기자금조달 위주

- 회사채의 경우, 우량 대기업들의 자금수요부진 지속으로 순상환 지속
- 단, 기업의 반기·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CP순발행은 6월과 12월 중 순상환¹⁰⁾ 기록(각각 2.6조원, 2.8조원 감소)

12월 중 회사채는 전월의 순발행에서 1.7조원 순상환으로 반전

- 이는 연말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자제한 데 주로 기인

<그림 II -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a)}
(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a) 회사채순발행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의한 발행물량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호.

10) 매년 발생하는 순환적 현상이다.

2. 외환시장 동향

가. 외화자금 동향

1) 국제수지 및 수출입추이

○ 국제수지는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흑자지속

경상수지는 해외여행증가와 같은 서비스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흑자로 인해 전년에 이어 흑자를 지속하지만 그 규모는 전년(86.2억불)에 비해 금년(70억불)에는 16억불¹¹⁾ 감소

자본수지는 전년에 -32.7억불 대비 금년에는 12억불¹²⁾로 흑자전환

○ 수출입에 의한 무역수지는 전년에 98.4억불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108억불로 흑자를 지속하며 규모도 전년대비 9.8%성장

수 출 : 1,628억불 (전년대비 8.2% 증가)

수 입 : 1,520억불 (전년대비 7.7% 증가)

무역수지 : 108억불 흑자

특히 12월 중 수출은 665억불로 2000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하였고, 수입도 142억불로 2000년 3월 이후 최고

11) 2002년 4/4분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한국은행 대외거래 국제무역팀의 예측치 사용(4/4분기 29억불, 10월과 11월의 실제 경상수지는 각각 13.8억불과 10.6억불 임)

12) 2002년 4/4분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한국은행 대외거래 국제무역팀의 예측치 사용(4/4분기 -2억불, 10월과 11월의 실제 자본수지는 각각 -14억불과 -4억불 임)

II. 금융시장 동향

- 12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의 유가상승(전월 대비 36.5%)과 기타 원자재가격의 상승(전월대비 LNG 37.9%) 및 실물경제의 꾸준한 성장으로 자본재 수입증가

○ 97년 경제위기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수지 규모는 누적액이 949억불을 달성하여서 정부수립이후 97년까지 무역적자 누적액인 898억불을 상쇄하고 순무역 흑자국으로 전환¹³⁾

<그림 II -7> 국제수지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각호.

13) 산업자원부, 「2002년 수출입동향」, 각호 참고.

2) 외환보유액 및 대외채무

- 2002년 외환보유액은 전년에 이어 연중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년 말 보유액인 1,028.2억불 대비 18% 증가한 1,214.1억불

경상수지 흑자기조, 보유외환 운용수익, 일부기업의 해외채권발행과 관련한 정부지분 매각대금 매입 및 유로화 및 엔화 강세에 따른 동 통화표시 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대폭 증가

- 연중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18.5%, 엔화는 10.9% 절상

금융기관의 외화예탁금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짐

연중 최고 보유액은 1,214.1억불(12월30일), 연중 최저 보유액은 1,043.0억불(1월31일), 연평균 1,118.5억불로 전년 평균대비 136.1억불 증가

- 외환보유액의 구성내용을 보면 12월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 1,072.2억불, 예치금 135.8억불, IMF포지션 5.2억불, SDR 0.1억불, 금 0.7억불 임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은 금년 말 현재 일본이 4,605억불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중국(2,746억불), 대만(1,591억불)이고 미국은 757억불

- 2002년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은 1,297억불로 전년 말 대비 120억불 증가하였고, 총 대외채권은 1,773억불로 전년 말 대비 145억불 증가

10월말 현재 총 대외지불부담 중 단기 외채는 전년 말 대비 134억불 증가한 525억불(총외채의 59.5%), 장기 외채는 전년 말 대비 13억불 감소한 772억불(총외채의 40.5%)

II. 금융시장 동향

• 장·단기 외채별 증감내용

(단위 : 억불)

구 분	은행 부문	외화 증권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원유 단기	외은 지점	금융 부문	수입 신용	합계
장 기	-3.6	52.5	15.1	3.8	0.0	0.0	7.5	0.0	-10.6
단 기	17.1	0.0	7.5	0.0	-2.0	80.3	15.5	11.6	134.8

* 장기부문에서 2.4억불, 단기에서 8천불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자료가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만을 토대로 구성하였기 때문

총대외채권 중 순채권은 10월말 현재 전년말대비 24억불 증가한 476억불로 1999년 9월 이후 순채권국가 지속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작년 12월부터 연초 2월에 37.8%로 가장 낮은 수준 기록

2002년 10월말 기준 전년말대비 7.2%p 증가한 44.9%¹⁴⁾

- 연초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국내 외국은행지점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외환이 증가한 것과 국내 은행들의 외환보유 증가보유에 있음

14)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60%미만이면 단기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 가능

<그림 II -8> 외환보유액 및 대외채무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재정부, 「국제금융국(외채자료 10월-총대외지불부담현황)」, 각호,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각호.

나. 환율

-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화와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 지속되며 심화
작년에는 원화와 엔화의 상관계수가 0.62정도였으나, 금년(1월~12월)
에는 0.97로 매우 높음
- 전년대비 원/달러 환율은 연중 125.7원 하락(9.5% 절상)하였고, 엔/달
러 환율은 12.2엔 하락(9.3% 절상)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종가기준)는 1,332.0원(4/12), 연중 최
저치는 1,165.6원(7/22), 연평균 1,250.5원(전년평균대비 3.1% 하락)

엔/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종가기준)는 134.8원(1/24), 연중 최저치는 115.8원(7/16)m 연평균 125.1원(전년평균대비 3.4% 상승)

○ 분기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동향

1/4분기 환율은 1,166.0~1,332.3원 133.0엔을 중심으로 횡보

- 초반에는 1,300원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3월 중순이후 급락

2/4분기는 원/달러 및 엔/달러의 동반 하락

- 미국의 경기회복부진, 기업분식회계에 의한 기업의 신뢰성 상실, 해외자본의 미국내 유입둔화 등에 의한 달러화 약세 진행으로 인해 엔/달러환율 하락
- 일본은 수출호조를 통한 경기회복대책 추진으로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엔/달러환율 하락 지연
-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의해 국가신용등급 향상(Moody's A등급)되며 안정적인 회복

3/4분기는 엔/달러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증가에 의해 9월 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

- 엔/달러환율은 미국내 해외자금의 유입증가, 일본경제의 재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승
- 국내경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증가, 국내경기 둔화 확산 우려, 유가 불확실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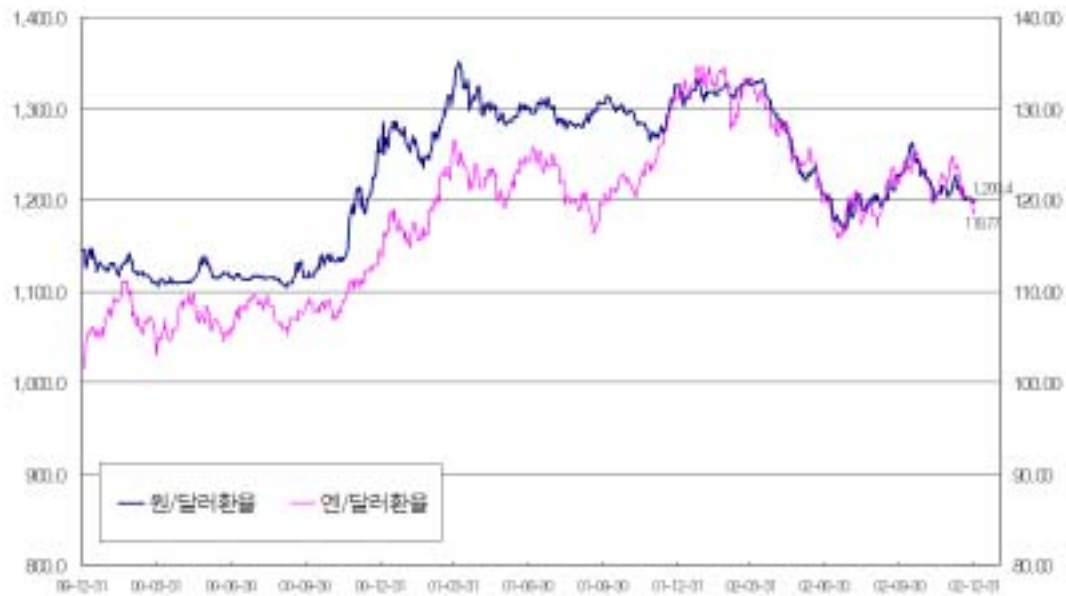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4/4분기는 국내 외환공급 우위로 환율이 1,197.2~1,262.8원, 118.5~125.6엔 사이에서 등락

-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수출증대, 외자유치자금 공급 등으로 공급우위 강화
- 원/달러 환율은 금년말 기준 전년말(1,326.1원)대비 9.5% 절상된 1,200.4원
- 엔/달러 환율은 금년말 기준 전년말(131.0엔)대비 9.3% 절상된 118.8엔

<그림 II -9>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원/달러, 엔/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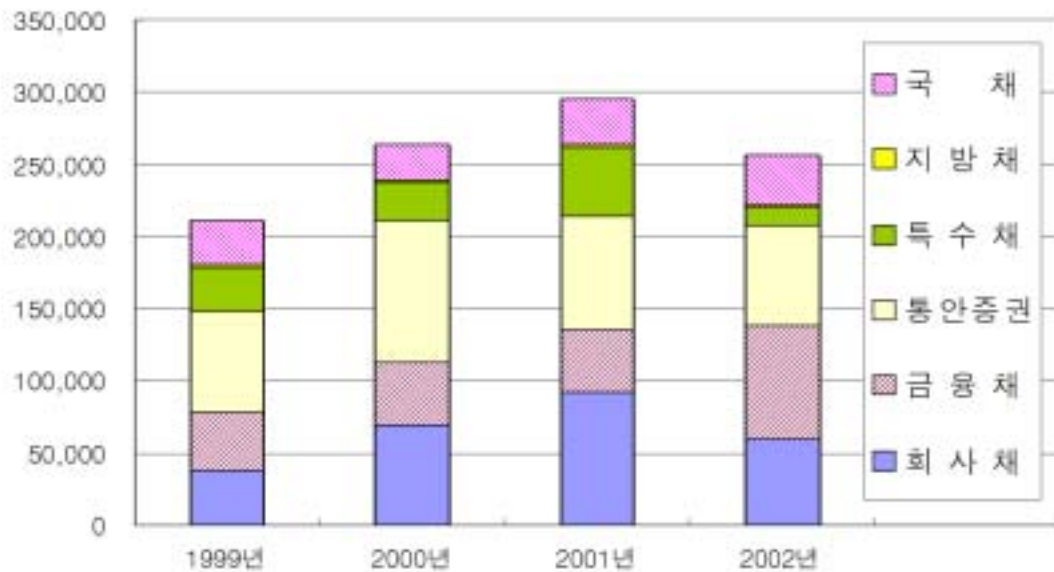
자료 : Datastream.

3. 채권시장 동향

○ 2002년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전년대비 38조원 감소한 256조원을 기록

<그림 II -10> 전체 채권발행 규모

(단위 : 십억원)



자료 : 본드웹.

<표 II -1> 전체 채권발행 규모

(단위 : 십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감 ^{a)}
국채	29,310	24,700	30,870	34,464	3,595
지방채	2,595	1,652	1,796	1,948	152
특수채	30,298	26,278	48,184	12,211	-35,972
통안증권	70,266	98,759	78,033	69,840	- 8,193
금융채	39,961	43,682	44,255	78,234	33,979
회사채	37,735	68,638	91,283	59,591	-31,691
계	210,165	263,709	294,420	256,290	-38,131

a) 2001년 대비 2002년도 증감

자료 : 본드웹.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은행권의 자금유입 단기화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여 금융채 발행은 전년대비 33.9조원이 증가

예보채 발행이 2001년 중단됨에 따라 2002년 9월까지 구조조정 공채의 발행이 없어 특수채 발행은 전년대비 35.9조원 감소

회사채 부문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이 줄어들고 기업부문의 보수적인 경영 지속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적어 회사채 발행액이 전년대비 31.7조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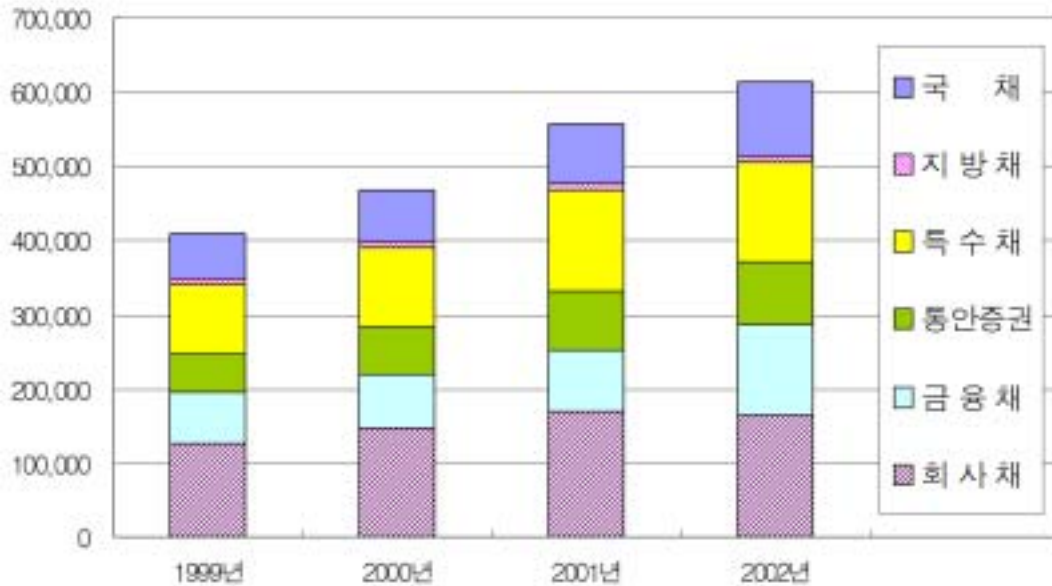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2001년에 비해 축소되고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도 부진하여 통안증권 발행수요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저금리 유지를 위한 통화완화정책이 지속되어 통안증권 발행이 전년대비 8조 2천억원 감소

- 전체 채권발행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만기물량이 감소하여 전체 채권발행 잔액은 증가

II. 금융시장 동향

<그림 II -11> 전체 채권발행잔액

(단위 : 십억원)



자료 : 본드웹.

<표 II -2> 전체채권 발행잔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감 ^{a)}
국채	60,337	68,704	80,041	99,254	19,213
지방채	8,935	9,763	9,711	9,311	-400
특수채	92,269	105,121	135,816	134,961	-855
통안증권	51,917	66,769	79,121	84,278	5,157
금융채	70,325	70,610	82,673	120,526	37,854
회사채	125,360	147,423	169,527	165,474	-4,053
계	409,143	468,389	556,890	613,805	56,915

a) 2001년 대비 2002년도 증감

자료 : 본드웹.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2002년 채권거래는 전년대비 604조원 감소한 2,157조원이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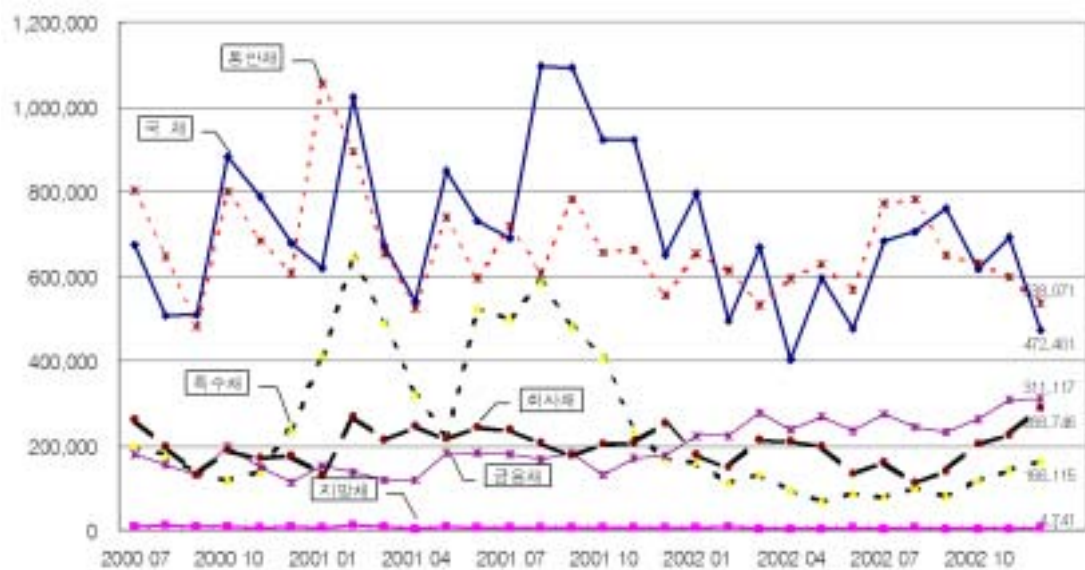
2001년도 채권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던 예보채의 실질적인 발행 중단과 회사채 발행물량 감소, 상반기중 금리상승 전망에 따른 위험요인이 작용하여 거래가 크게 위축

금융채는 발행규모와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특수채 보다 거래량이 많음

- 단기 부동화 현상으로 인해 단기 금융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수요 확대가 일조

<그림 II -12> 채권 종류별 거래 동향

(단위 : 억원)



자료 : 본드웹.

<표 II -3> 채권종류별 거래 동향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증 감 ^{a)}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전 체	1,850,924	1,864,208	2,756,344	2,795,342	2,152,348	2,156,734	-603,995	-638,607
국 채	574,612	582,670	961,389	985,033	727,811	731,816	-233,578	-253,217
지방채	15,032	15,366	8,033	8,010	5,979	5,638	-2,055	-2,372
특수채	202,962	210,513	487,694	500,782	129,818	134,213	-357,877	-366,569
통안채	614,568	610,770	846,998	846,792	757,667	753,153	-89,331	-93,639
금융채	171,441	172,484	189,616	191,342	310,358	308,100	120,742	116,759
회사채	272,309	272,406	262,613	263,382	220,717	223,814	-41,897	-39,568

a) 2001년 대비 2002년도 증감

자료 : 본드웹.

- 2002년은 예보채, 회사채의 발행 축소로 인해 장기물 공급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보험과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어 장기물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냄

<그림 II-13>을 보면 연초의 콜금리와 국채 5년물 사이의 스프레드가 연말로 다가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1→4)

- 2002년 중 채권 수익률

2001년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가의 급상승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급등

2002년 초부터 2월 28일 사이에 나타난 반락기에는 추세적 수익률 상승세 지속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전분기 채권 수익률의 단기급등에 따른 저가 매수 수요와 우호적인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냄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2월 28일부터 3월 19일 동안 국채수익률이 84bp 상승하는 급등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 기간동안 종합지수는 900선을 돌파하였고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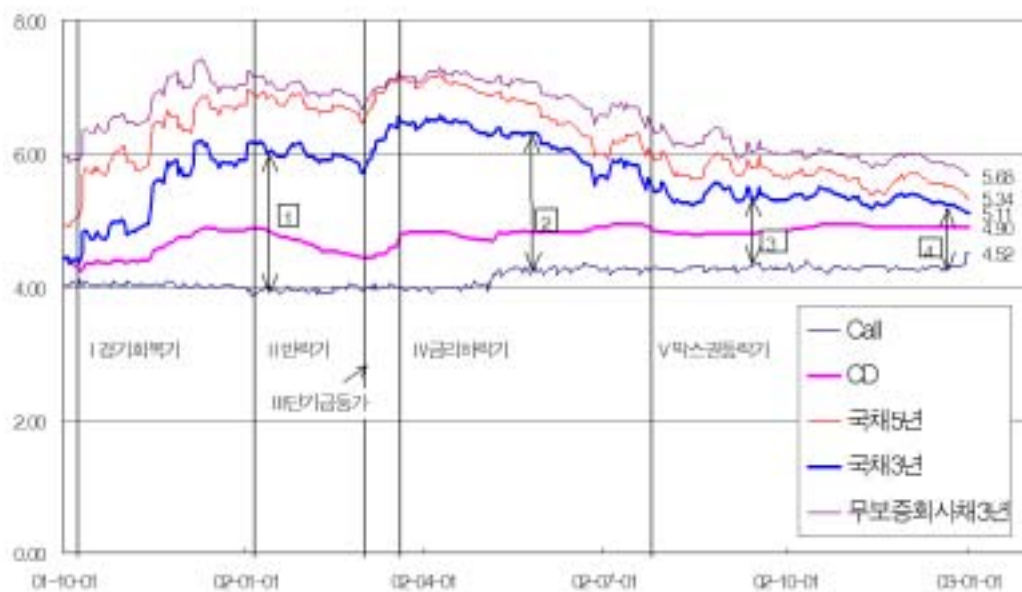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타난 금리 하락기에는 주식시장의 부진과 국내 경제지표의 상승탄력 약화, 전반적인 채권 수급호조가 나타났다음

8월 이후 콜금리 및 CD와 같은 단기 금리는 하락하지 않은 반면 장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저하로 장기물 채권 금리는 등락을 거듭하는 속에서 하락 기조를 유지

- 12월 31일 국채 3년물 금리는 연중 최저인 5.11%를 기록

<그림 II -13> 단기 금리 및 채권수익률 추이

(단위 : %)



자료 : Datastream.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

1. 세계경제 및 증시 동향

○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 경제의 부진한 회복에 따라 세계경기 회복 지연

2001년 말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반등하였으나,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던 국가들의 경제가 동반 둔화

• 이는 소비둔화, 투자부진 등이 실업증가로 이어지기 때문

중남미 정치·경제불안, 미·이라크 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은 향후 경기에 대한 회복 지연과 불확실성 증대로 연결

<표 III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01 ^{a)}	2002 ^{a)}	2003 전망			
			IMF	DRI-WEFA	OECD	World Bank
세계	2.2	2.8	3.7	2.6	-	3.4
선진국	0.8	1.7	2.5	-	2.2 ^{b)}	2.1 ^{b)}
미국	0.3	2.2	2.6	2.6	2.6	2.6
일본	-0.3	-0.5	1.1	1.4	0.8	0.8
유로	1.6	1.1	2.3	2.3	1.8	1.8
아시아 신흥시장국	5.6	5.9	6.1	-	-	-
중국	7.3	7.5	7.2	7.8	-	-

a) IMF 기준(단, 2002년은 9월 기준 예측치)

b) OECD 회원국 기준

자료 : IMF, 2000, World Economic Outlook, 9.

OECD, 2002, OECD Economic Outlook, 11.

DRI-WEFA, 2002, Monthly Outlook, 11.

World Bank, 2002, Global Economic Prospects, 12.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세계증시는 하반기에 들어 미국증시 악재와 달러화 하락에 따라 동반 침체로 연결

2001년 9·11테러 이후 연초에는 전세계 주식시장이 회복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회복세

하반기에는 미국의 회계부정에 의한 신뢰성 저하, 경기회복 부진, 소비위축 우려, 경제불안 우려 등으로 달러화 약세 실현과 함께 미국증시를 시작으로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전세계 증시는 근5년 내의 최저치로 동반하락

연말에 들어와서는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증폭,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증시하락

-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주가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는데, 이는 금년들어 더욱확대¹⁵⁾

미국(Dow Jones): 0.79%(2000)→0.81%(2001)→0.94%(2002)

영국(FTSE 100): 0.71%(2000)→0.76%(2001)→0.90%(2002)

독일(DAX): 0.94%(2000)→1.09%(2001)→1.30%(2002)

일본(Nikkei 225): 0.89%(2000)→1.11%(2001)→1.02%(2002)

- 일본의 주가변동성은 금년들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대로 높음

- 9·11 테러 이후와 연초대비 주요국 주가지수 수익률을 비교할 때 한국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가장 큰 상황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우는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9·11 테러 직후의 수준으로 하락 또는 더 많은 하락이 있었으나 KOSPI 지수는 아직 32% 정도 상승한 상태임

15) 산업은행, 2002, 「산은조사월보」, 12월호 참조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

연초대비 2002년 12월말 기준주가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독일의 KOSDAQ이 각각 44%, 40% 하락함으로써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여줌

<표 Ⅲ -2> 9·11 테러 이후 주요국 주가지수 수익률^{a)}

구 분	KOSPI	KOSDAQ	DOW	NASDAQ	DAX 30	FTSE 100	NIKKEI 225
2001년 09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년 10월	1.13	1.14	1.02	1.07	1.07	1.34	1.08
2001년 11월	1.35	1.29	1.10	1.22	1.17	1.36	1.11
2001년 12월	1.46	1.32	1.12	1.23	1.21	1.40	1.10
2002년 01월	1.57	1.42	1.11	1.22	1.20	1.39	1.04
2002년 02월	1.72 (1.13)	1.44 (1.06)	1.13 (1.01)	1.10 (0.89)	1.18 (0.98)	1.37 (1.24)	1.10 (0.97)
2002년 03월	1.88 (1.24)	1.70 (1.25)	1.17 (1.04)	1.17 (0.95)	1.26 (1.04)	1.41 (1.29)	1.15 (1.01)
2002년 04월	1.77 (1.16)	1.34 (0.98)	1.11 (0.99)	1.07 (0.87)	1.18 (0.98)	1.37 (1.25)	1.20 (1.06)
2002년 05월	1.67 (1.10)	1.28 (0.94)	1.11 (0.99)	1.02 (0.83)	1.13 (0.93)	1.31 (1.19)	1.22 (1.08)
2002년 06월	1.56 (1.02)	1.11 (0.82)	1.04 (0.92)	0.93 (0.75)	1.03 (0.85)	1.18 (1.07)	1.11 (0.98)
2002년 07월	1.51 (0.99)	1.07 (0.79)	0.98 (0.87)	0.84 (0.68)	0.87 (0.72)	1.11 (1.01)	1.03 (0.91)
2002년 08월	1.55 (1.02)	1.08 (0.79)	0.97 (0.86)	0.83 (0.67)	0.87 (0.72)	1.09 (1.00)	1.00 (0.88)
2002년 09월	1.36 (0.89)	0.85 (0.63)	0.85 (0.76)	0.74 (0.60)	0.65 (0.54)	0.97 (0.88)	0.98 (0.86)
2002년 10월	1.39 (0.91)	0.88 (0.65)	0.94 (0.84)	0.84 (0.68)	0.74 (0.61)	1.05 (0.95)	0.90 (0.79)
2002년 11월	1.52 (1.00)	0.95 (0.70)	1.00 (0.89)	0.94 (0.76)	0.78 (0.64)	1.07 (0.97)	0.96 (0.85)
2002년 12월	1.32 (0.87)	0.81 (0.60)	0.94 (0.83)	0.85 (0.68)	0.68 (0.56)	0.80 (0.76)	0.90 (0.81)

a) 9·11테러 직후를 1로 표준화했을 때 주가변동

1월말을 1로 표준화했을 때 ()는 연초대비 수익률

자료 : Datastream.

2. 미국경제 및 증시 동향

○ 2002년중 경기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모습

1/4분기는 주요기업들의 재고감축이 급격히 둔화된데 힘입어 5%의 강한 성장

2/4분기는 소비와 투자가 생산을 증가시킬 정도로 늘어나지 못해 1.3% 성장에 그침

3/4분기는 내구재 소비가 늘어 4%성장

경기상승요인으로는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생산성과 주택경기 호조와 개인소비의 견조세, 40년래 최저 금리수준인 1.25% 등

경기하락요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투자지연, 고용없는 회복 지속, 달러환율 불안, 주가의 급등락 등 주요 경제변수의 움직임이 불안정한데다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

<표 III -3>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연율, %, 계절조정)

구분 년도	GDP 성장률	수출 (단위:억불)	수입 (단위:억불)	경상수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실업률	소매 판매액
2002. 1	5.0	550	885	△ 1,125	△ 2.7	1.1	5.6	△ 0.1
2		547	910		△ 2.6	1.1	5.5	0.5
3		550	916		△ 1.6	1.5	5.7	△ 0.1
4	1.3	568	970	△ 1,300	△ 2.1	1.6	6.0	1.2
5		573	990		△ 2.7	1.2	5.8	△ 1.1
6		582	989		△ 2.1	1.1	5.9	1.4
7	4.0	591	981	-	△ 1.1	1.5	5.9	1.2
8		583	1,006		△ 1.6	1.8	5.7	0.5
9		583	996		△ 1.9	1.5	5.6	△ 1.3
10	-	571	965	-	0.6	2.1	5.7	0.1
11		-	-		0.9	2.3	6.0	0.4

자료 : 재정경제부.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

○ 주가는 경기회복 관망세와 더불어 3월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다 국내외 요인이 맞물려져 하락세로 전환

국내적으로 고용 및 설비투자의 회복지연, 기업회계 불신으로 기업 수익 전망 불투명

국외적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제자본의 미국이탈, 달러환율 불안정 등 주요 경제변수 불안정에 기인

6월 말에는 엔론과 월드콤 등 주요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파문들과 연결되어 투자자들의 불신 고조와 미국의 기업 신뢰성 하락에 따른 급락

10월 중에는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 제기에 따라 미국내 국제자본의 이탈과 달러 환율 불안정 등과 동시에 4월 이후 나타난 미국 주식형 펀드의 대규모 자금유출과 관련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락

12월말 다우지수는 전년말대비 17% 하락한 8,341.63으로 마감

12월말 나스닥지수는 전년말대비 32% 하락한 1,335.51로 마감

<그림 Ⅲ -1>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3. 유럽경제 및 증시 동향

○ 유로지역¹⁶⁾은 경기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 증가 공존

경기회복 부진의 이유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의 고정투자가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경직은 소비자신뢰 악화와 민간소비 악화로 연결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2.75%로 0.5% 인하
유로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의 경기회복 약세지속(3/4분기 경제성장률 0.4%)은 유로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됨

- 독일은 사회보장비용 증대, 고용유연성의 부족,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경제대국은 재정적자 확대에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유로지역국가들의 수출 부진

유로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근 2년내 최고치

- 10월중 독일·프랑스의 실업률이 각각 8.3%, 8.8%에 반해 오스트리아·아일랜드는 각각 4.1%, 4.4%

16) 유로지역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유로화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역 연합을 일컫는다.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

<표 Ⅲ -4> 유로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연율, %, 계절조정)

구분 년도	GDP 성장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실업률	소매 판매액
2002. 1	0.3	812	802	△ 1	△ 0.7	2.7	8.1	0.1
2		844	774	44	△ 0.9	2.5	8.1	0.2
3		928	818	74	△ 0.7	2.5	8.1	0.6
4	0.6	904	858	△ 46	△ 0.6	2.4	8.1	△ 0.9
5		911	823	24	△ 0.8	2.0	8.2	0.4
6		906	797	73	△ 0.9	1.8	8.3	△ 0.6
7	0.8	945	806	26	△ 0.3	1.9	8.3	0.9
8		811	711	97	△ 0.1	2.1	8.3	1.0
9		897	807	80	0.1	2.1	8.3	△ 2.1
10	-	980	893	-	0.9	2.3	8.4	-
11	-	-	-	-	-	2.2	-	-

자료 : 재경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미증시와 더불어 3월까지 상승세로 출발했던 유럽증시가 미증시 하락으로 동반 하락세로 전환되어 연말까지 지속

유럽의 주요주가는 6월말 기준 올초대비 560~800포인트 정도씩 하락하였고 연말 기준 올초대비는 1,300~2,279포인트 정도씩 하락

- 6월 미국기업회계부정에 의한 기업신뢰성 하락이 유럽의 주요기업과도 연관
- 연말에는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증폭, 국제유가 불안 등에 유로지역 경기회복 부진

주요국의 주요지수는 각각 전년 말 대비 독일(DAX 30)은 44%, 프랑스(CAC 40) 34%, 영국(FTSE 100) 24% 하락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유럽 주가는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락

독일(DAX 30)의 경우 은행업은 49%, 보험업은 63%하락

<그림 III -2> 유럽 주요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4. 일본경제와 증시 동향

○ 수출증가를 기반으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디플레이지속, 부실채권누적 등 구조적인 불안요인

일본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대량 실업발생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 10월말 일본의 부실채권규모를 2005년 3월까지 현재(52조 4천억 엔)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발표

실업률이 10월에는 5.5%를 기록하며 연중최고를 기록하며 여전히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내포

미국경제 회복이 불안정 등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가능성, 엔화강세 등으로 일본 경기회복 지연

<표 III -5>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연율, %, 계절조정)

	GDP 성장률	수출 (단위: 억엔)	수입 (단위: 억엔)	경상수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실업률	소매 판매액
2002. 1	0.2	35,596	33,759	6,843	△ 1.5	△ 1.4	5.3	△ 4.5
2		40,217	32,364	14,270	△ 1.4	△ 1.6	5.3	△ 6.2
3		47,732	35,072	21,802	△ 1.4	△ 1.2	5.2	△ 5.4
4	1.0	44,022	35,675	10,909	△ 1.2	△ 1.1	5.2	△ 4.5
5		41,523	35,341	10,481	△ 1.2	△ 0.9	5.4	△ 3.2
6		44,305	32,085	14,389	△ 1.0	△ 0.7	5.4	△ 3.8
7	0.8	43,968	36,472	11,358	△ 1.2	△ 0.8	5.4	△ 5.5
8		40,685	34,264	10,798	△ 1.0	△ 0.9	5.4	△ 2.1
9		44,507	33,960	11,705	△ 0.9	△ 0.7	5.4	△ 2.9
10	-	46,499	37,562	9,360	△ 0.5	△ 0.9	5.5	△ 3.0
11	-	46,365	37,460	-	△ 0.3	-	-	-

자료 : 재정경제부.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불투명한 경기회복과 부실채권 처리 지연에 의해 주가는 3년 연속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

경기회복의 관망세와 더불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5월까지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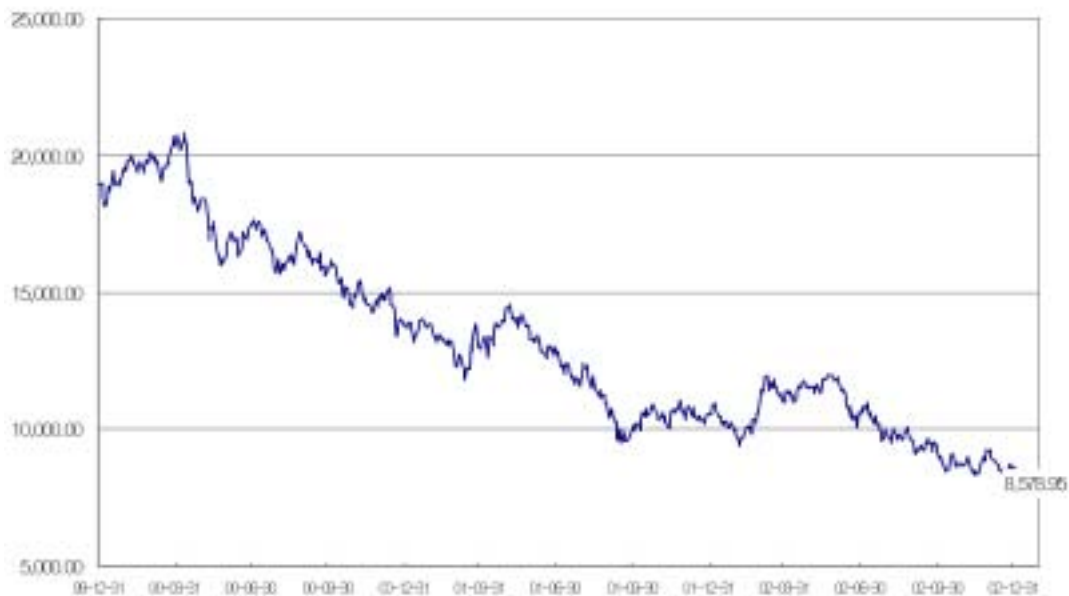
- 연중 최고치인 5월 23일 주가는 연초대비 14%상승

6월중 미국의 기업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전세계증시가 동반 하락함에 따라 일본증시 동반하락

정부의 세제개혁 등 부실채권정리를 비롯한 금융개혁 진전의 기대감속에 11월 중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

12월말 니케이225지수는 전년말대비 17% 하락한 8,578.95로 마감

<그림 III -3> 니케이225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5. 아시아경제와 증시 동향

○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중국경제는 소비와 건설 등 내수를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연중 비교적 높은 7~8% 정도의 고성장세를 지속

IT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 미국경제 침체로 타격을 많이 받은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전년의 마이너스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산업생산은 싱가포르와 대만이 각각 전년대비 올 3월에 17%, 10% 증가를 비롯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생산은 증가

다만 홍콩은 경제성장률이 수출회복 지연 및 내수저조로 정체 지속

<표 III -6>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

	중국 GDP 성장률	홍콩 GDP 성장률	대만 GDP 성장률	싱가포르 GDP 성장률	태국 GDP 성장률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
2000 연간	8.0	10.2	5.9	10.3	4.6	8.3
2001 연간	7.3	0.6	-2.2	-2.0	1.8	0.4
2002. 1/4	7.6	-0.5	1.2	-1.5	3.9	1.1
2002. 2/4	8.0	0.5	4.0	3.8	5.1	3.9
2002. 3/4	8.1	3.3	4.8	3.9	5.8	5.6

자료 : 재정경제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아시아 주가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및 주가하락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국별로는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큰 폭 하락
- 12월말 중국 상하이지수는 전년말대비 34% 하락한 1,357.65로 마감
- 12월말 홍콩 항생지수는 전년말대비 18% 하락한 1,130.24로 마감
- 12월말 말레이시아지수(KLSE 종합)는 전년말대비 7% 하락한 646.32로 마감
- 12월말 대만지수(TAIEX)는 전년말대비 20% 하락한 101.84로 마감
- 12월말 싱가포르지수(Strait Times)는 전년말대비 17% 하락한 348.80으로 마감
- 다만 태국은 경제사정 호전을 배경으로 전년말대비 17.3% 상승한 356.48로 마감

<그림 III -4> 중국 및 홍콩의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Ⅲ. 해외경제 및 해외증시 동향

<그림 Ⅲ -5>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림 Ⅲ -6> 대만과 싱가포르의 주가지수 추이



자료 : Datastream.

6. 유가

○ 국제유가(WTI기준)는 전년대비 금년 12.9불(65%) 상승하였고, 12월에만 5달러의 상승이 있었음

11월 중순까지는 이라크의 UN무기사찰 수용과 OPEC의 원유증산 등으로 빠른 하락세(11월 15일 기준 25.56불)

12월 미·이라크간 전운 고조에 북핵문제가 더해짐,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파업, 동절기 수요증대, OPEC의 산유량 축소 등의 요인으로 빠른 상승세

- 12월 27일 연중 최고인 32.65불
- OPEC은 회원국은 베네수엘라 파업 장기화로 목표가격(28불)을 20일 이상 연속 상회할 경우 증산계획

<그림 III -7> 국제유가(서부텍사스 중질유) 추이

(단위 : 달러)



자료 : Datastream.

자료 : 증권거래소, KOSDAQ 웹사이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1/4분기중 주가는 경기의 상승세 전환, 기관화 장세의 도래, 세계 경제의 회복추세 등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2001년말 대비 21% 상승
코스닥도 전년말 대비 28.4% 상승
1월에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 미 경기회복 낙관 발언이 있었고, 2월말 발표된 1월 산업생산지표도 호조로 발표되는 등 호재가 있었음
2월에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개월간의 거래소 순매수를 끝내고 순매도로 전환
- 2/4분기중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최대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어 한때 연중 최고치인 937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3월 이후 순매도를 지속함으로써 큰 폭의 하락세 시현
1/4분기대비 종합주가지수는 47.2%, KOSDAQ지수는 34.4%가 하락하였음
미 기업실적 부진과 미국 경제회복 지연 우려감이 증폭되었음
원/달러 환율 하락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감 발생
6월말에 들어 미국 회계부정 사건으로 미 증시가 급등락을 하여 국내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 3/4분기중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 지속, 미 증시 하락세 심화, 반도체 가격 약세, 원/달러 환율하락 등에 기인하여 2/4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세를 보임
2/4분기대비 종합주가지수는 7.5%, KOSDAQ지수는 15.3%가 하락
9월초 주식시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증시가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심리가 악화되었음
9월말에는 미·이라크 전쟁 우려감, 경제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부상하였음

- 2002년 4/4분기 이후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8개월 연속 거래소 순매도가 10월에 끝나 대세 하락 기조는 일단 중단되었으나, 미·이라크 전쟁, 북핵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4분기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2.48% 하락하였으나 KOSDAQ지수는 2.89% 상승하였음

10월 이후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여 11월에는 반도체 현물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국내 내수경기를 지탱해온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북핵문제가 주요문제로 부각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음

2. 거래 동향

가. 거래소

- 증시 활동성

2002년 3월 기업의 실적이 최고치를 발표한 이후, 증시하락과 함께 거래도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음

- 2002년 1월대비 12월 시가총액은 7%하락한 258.7조를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중 LG카드의 기업공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었던 교보증권, 삼성, 신세계건설 등의 거래소 이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 감소가 둔화되었음
- 주식 회전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저가주의 대량거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표 IV-1> 거래소시장 거래지표

구분 년월	시가총액 ^{a)} (조원)	일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주식 회전율 ^{b)} (%)	시가 회전율 ^{c)} (%)
1999	349.5	3,481.6	466.89	355.71
2000	188.0	2,602.2	387.83	234.03
2001	255.9	1,997.4	599.03	221.86
2002	258.7	3,034.0	883.56	250.80
2002. 1	278.3	4,104.6	77.95	33.07
2002. 2	306.2	3,521.3	51.76	20.56
2002. 3	336.6	4,366.8	61.54	26.95
2002. 4	325.8	4,038.8	70.41	25.88
2002. 5	309.2	3,181.0	74.10	21.80
2002. 6	297.3	2,423.5	56.94	14.31
2002. 7	289.3	3,138.3	121.33	22.41
2002. 8	298.4	2,436.4	90.80	17.53
2002. 9	263.2	2,135.3	52.68	15.03
2002. 10	269.4	2,472.6	86.93	20.34
2002. 11	297.2	2,451.2	79.41	18.32
2002. 12	258.7	2,138.3	59.68	14.55

a) 시가총액은 월(년)말 기준

b), c) 월간 회전율의 합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 투자자별 동향

1997년 외환 위기 후 매년 순매수를 해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2002년 처음으로 2조 8,986억원을 순매도하였음

2002년 중 외국인은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매수 후 10월부터 연속 3개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음

개인은 2002년 중반 이후까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후반기에 매도 우위를 보였음

IV. 주식시장 동향

투신사는 2002년 1조 8,522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이는 투신사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의무 배정물량이 주식 시장 상황이 좋은 않아 지속적으로 매도된데이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인과 월간 순매수가 거의 정반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조적임

<표 IV-2> 거래소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단위 : 십억원)

구분 년월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 신용금고	기금· 공제회	기관 합계	기타	개인	외국인
1998	-764.1	-799.3	-689.7	-3,064.6	-160.7	-21.6	-5,500.0	-53.1	-170.3	5,723.4
1999	-2,907.8	-3,080.0	12,768.1	-4,025.7	-1,268.1	-723.9	762.6	-1,611.6	-667.2	1,516.2
2000	-1,097.2	-651.7	-7,107.7	-449.6	-230.1	867.9	-8,668.4	1,086.1	-3,804.9	11,387.2
2001	-963.8	-1,097.9	-1,299.2	-3.2	-116.0	700.0	-2,780.1	-428.6	-4,238.3	7,447.1
2002	-273	-5,055	18,522	-8,655	-3,794	8,157	8,902	11,440	8,644	-28,986
2002. 1	2.1	18.5	-354.3	382.9	-21.5	3.5	31.2	-373.5	214.0	128.2
2002. 2	296.9	6.8	638.8	35.8	-74.6	133.3	1,037.0	-91.6	-616.5	-328.8
2002. 3	-164.3	-221.4	1,198.8	13.5	-49.6	161.7	938.7	-189.3	433.7	-1,183.1
2002. 4	138.4	-12.9	161.9	-195.7	-52.9	197.2	236.0	287.3	843.7	-1,367.2
2002. 5	-558.7	-72.1	1,045.4	19.9	-53.0	140.8	522.3	156.8	140.6	-819.6
2002. 6	10.5	-158.8	127.8	-914.6	9.5	-30.4	-956.0	422.4	779.0	-245.4
2002. 7	-88.1	-129.3	66.4	28.5	-30.5	88.2	-64.8	47.1	346.7	-329.0
2002. 8	103.7	86.6	303.2	0.6	9.3	-18.7	484.7	1,076.4	-441.9	-1,119.1
2002. 9	-121.6	-177.6	-498.4	0.0	-48.4	-36.0	-882.0	158.4	746.6	-23.1
2002.10	161.3	60.2	-367.9	-172.8	-22.0	7.4	-333.8	294.8	-440.9	480.0
2002.11	150.8	82.0	-81.5	-72.5	-18.2	53.4	114.0	-148.6	-1,782.4	1,817.0
2002.12	41.7	12.5	-388.0	8.9	-27.5	115.3	-237.1	-496.2	641.8	91.5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투자자별 월별 순매수와 주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기업들의 기업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기 2개월 전부터 투신사들이 대거 순매수를 기록하였음
- 반면 개인들은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때 주요 순매수 세력이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지수 하락기에 주요 순매수 세력이 되어 2002년 중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측됨
-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하다 10월 이후에 순매수를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중 주가 상승이 있었음

<그림 IV-2> 종합주가지수와 월별 순매수 최고부문

종합주가지수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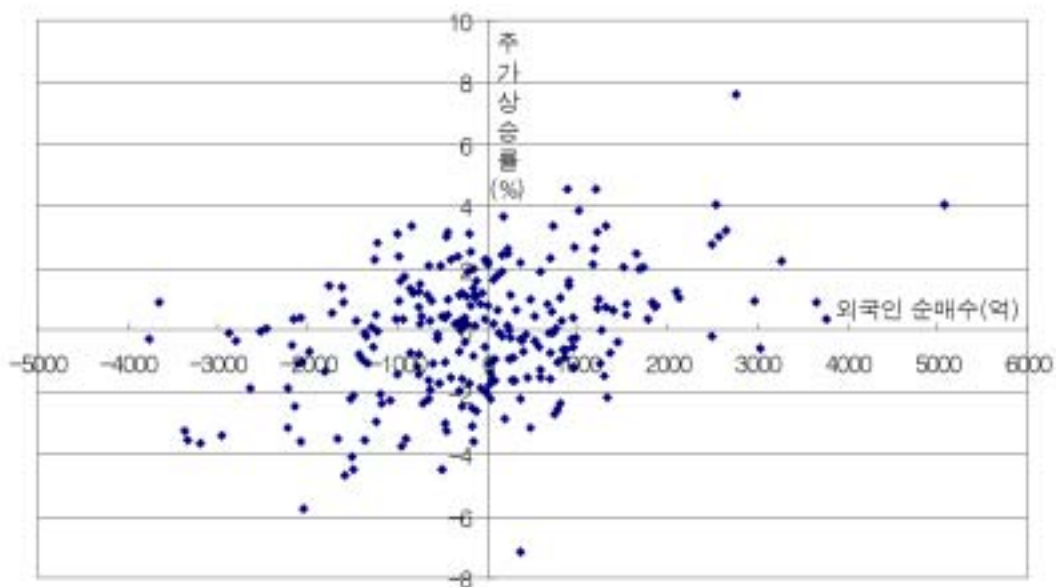


자료 : 증권거래소 웹사이트.

- 외국인 투자가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IV-3>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었음

외국인 순매수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V-3> 2002년 중 일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와 주가상승률



자료 : 증권전산 check 단말기.

나. KOSDAQ

- 2002년 말 시가총액은 전년말대비 27.8% 감소한 37.4조원을 기록

일평균 거래대금은 2002년 5월까지의 전년 거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상당히 둔화되었음

주식회전율과 시가총액 회전율은 KOSDAQ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3월 이후 주가하락과 함께 전년평균에 밑도는 회전율을 기록하였음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2002년 월평균 주식회전율은 전년평균 93.48보다 25.15p 낮은 68.33을 기록

<표 IV-3> 코스닥시장 거래지표

구분 년월	시가총액 ^{a)} (조원)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주식회전율 ^{b)} (%)	시가총액회전율 ^{c)} (%)
1999	98.7	428.9	205.41	108.24
2000	29.0	2,400.4	724.20	2,325.96
2001	51.8	1,728.4	1,121.76	820.56
2002	37.4	1,204.8	819.96	555.00
2002. 1	58.5	1,492.1	89.30	58.70
2002. 2	60.5	1,349.7	60.00	38.90
2002. 3	71.8	2,609.2	107.50	77.00
2002. 4	57.9	1,752.1	84.40	58.50
2002. 5	55.7	1,342.8	76.20	51.00
2002. 6	49.1	810.2	42.10	27.80
2002. 7	47.5	987.9	68.50	42.90
2002. 8	48.1	871.8	60.10	38.40
2002. 9	38.2	647.3	47.60	29.90
2002.10	39.4	727.8	57.40	41.10
2002.11	43.3	865.3	58.30	44.10
2002.12	37.4	1,001.7	68.60	46.70

a) 시가총액은 월(년)말 기준.

b), c) 월간 회전율의 합.

자료 : KOSDAQ 웹사이트.

IV. 주식시장 동향

○ 2002년 중 코스닥은 개인이 1조 8,132억을 순매수하였으나, 기관은 1조 2,768억원을 순매도하였음

2002년 중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하였음

- 특히 투신사는 거래소에서 1조 8,500억 이상 순매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9,300억을 순매도하였음

11월 및 12월 들어 외국인이 주요 순매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표 IV-4>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단위 : 십억원)

구분 년도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	기금· 공제회	기관 합계	기타	개인	외국인
2000	-186.7	126.6	-1,070.7	-38.5	-498.4	-12.8	-1,680.5	-2,574.9	2,690.4	1,564.7
2001	-228.6	-46.9	-850.1	-27.4	-194.9	37.3	-1,310.5	-917.1	963.8	1,263.8
2002	-205.2	-24.0	-930.0	-50.4	-147.6	79.2	-1276.8	-723.6	1813.2	187.2
2002. 1	-6.8	23.5	-24.3	-53.3	-12.1	6.8	-66.2	-144.9	40.5	170.6
2002. 2	-33.5	-6.4	-97.6	5.8	0.1	5.8	-125.8	-73.5	80.4	118.9
2002. 3	-130.1	3.4	-32.1	-43.5	-31.6	2.6	-231.3	-260.4	432.8	58.8
2002. 4	-31.3	-2.2	-136.5	-16.2	-12.0	-10.2	-208.4	-78.7	577.2	-290.2
2002. 5	-9.0	3.7	-106.3	4.7	-12.4	10.2	-109.1	-46.8	41.3	114.5
2002. 6	-3.1	-14.0	-78.4	9.6	9.3	1.5	-75.1	8.3	54.5	12.4
2002. 7	6.5	-16.7	-100.9	-3.7	-27.5	25.7	-116.6	-13.7	161.8	-31.5
2002. 8	20.4	-1.1	-87.5	8.5	-17.6	-0.6	-77.7	10.7	113.2	-46.2
2002. 9	-0.7	-9.4	-70.0	23.4	-19.2	5.9	-70.1	-15.1	194.3	-109.1
2002.10	-1.4	-4.0	-70.2	14.4	-12.8	5.7	-68.3	-14.4	77.3	5.5
2002.11	12.5	6.4	-75.6	12.6	-8.5	15.6	-37.0	-49.9	-17.7	104.6
2002.12	-28.8	-7.1	-50.5	-12.7	-2.9	10.7	-91.4	-45.4	57.9	78.9

자료 : KOSDAQ 웹사이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KOSDAQ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적시에 투자를 못한 것으로 판단됨
 개인은 KOSDAQ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때 주요 순매수 세력이었고, 이후 하락기에도 주요 순매수를 기록함으로써 상당한 투자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됨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IV-4> 종합주가지수와 월별 순매수 최고부문

코스닥지수

(단위 : 십억원)



자료 : KOSDAQ 웹사이트.

3. 기업의 경영성과¹⁷⁾

가. 수익성

- 2002년 1~9월 중 제조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7.6%로 전년동기(2.2%) 대비 5.4% 상승

조사대상은 분기 재무제표 작성 대상업체(상장법인, 코스닥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로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정보통신관련업을 영위하는 1,453개 업체임(이하 동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재료비 감소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

금리 하락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하였고, 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액대비 영업외수지가 전년동기대비 4.0%p 개선되었음

<표 IV-5> 상장 제조업체 수익성 추이

(매출액대비, 단위 : %)

	98	99	00	01	02.상	01.1~9	02.1~9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93.0	92.7	91.8	94.7	91.4	93.3	91.9
영 업 이 익	7.0 (6.1)	7.3 (6.6)	8.2 (7.4)	5.3 (5.5)	8.6 (7.8)	6.7	8.1
영 업 외 수 지	-9.7	-5.7	-8.4	-6.8	0.2	-4.5	-0.5
(순금융비용)	-7.8	-6.3	-4.5	-4.1	-2.8	-3.7	-2.5
<금융비용>	-10.4	-7.9	-5.6	-5.0	-3.5	-4.5	-3.2
(순외환손익)	1.0	0.4	-0.9	-0.4	1.1	-0.5	0.5
경 상 이 익	-2.6 (-1.8)	1.6 (1.7)	-0.3 (1.3)	-1.4 (0.4)	8.8 (7.3)	2.2	7.6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17) 한국은행, 2002,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12p에서 인용.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제조업 전체의 경상이익률은 상승했으나 경상이익 적자 업체의 비중은 전년동기(27.1%) 보다 2.6%p 증가한 29.7%로 나타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IV-6> 상장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구간별 업체수 구성비

(구성비, 단위 : %)

매출액 경상이익률	-20%미만	-20% ~-10%	-10% ~-0%	0% ~10%	10% ~20%	20%이상
2001년 1~9	8.3 (-571.4) ^{a)}	5.2 (-14.2)	13.6 (-4.2)	49.1 (4.5)	16.8 (13.8)	7.0 (30.5)
2002년 1~9	10.9 (-138.5)	5.6 (-15.1)	13.2 (-4.2)	45.0 (4.6)	19.0 (13.6)	6.3 (33.1)

a) ()내는 구간내 업체의 평균 매출액 경상이익률(%)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 2002년 1~9월 중 조사대상 상장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비율은 253.6%로 전년동기(147.2%)보다 106.4%p 상승하였음

그러나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 미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업체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음

<그림 IV-5> 상장제조업체 이자보상비율 분포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IV. 주식시장 동향

○ 제조업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상승하였음

특히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업종은 매출호조로, 화학제품업종은 원재료가격 하락,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표 IV-7>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수익성 관련지표

(단위 : %)

업 종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01.1~9	02.1~9	01.1~9	02.1~9
제조업	2.2	7.6	6.7	8.1
음식료품	8.6	7.4	10.4	10.8
섬유제품	-1.5	0.1	5.6	6.6
펄프·종이	-1.2	4.7	8.4	13.7
석유정제·코크스	0.6	4.1	3.7	2.4
화학제품	2.6	8.2	7.6	9.8
고무·플라스틱	2.2	4.9	10.1	9.0
비금속광물	4.4	11.0	14.2	14.5
제1차금속	3.7	7.4	9.2	9.3
컴퓨터·사무기기	-6.1	2.6	-3.3	6.1
기타전기기계	5.1	5.8	7.1	5.2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	0.6	11.9	5.0	10.6
자동차	2.9	8.7	7.2	5.6
조선·기타운송장비	3.2	4.0	8.4	6.3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상장 건설업체(코스닥 및 금감위 등록법인 포함, 이하 동일)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전년동기의 1.5% 적자에서 4.2% 흑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건설경기의 호조로 매출이 증가하고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건설원가 하락에 기인함

- 상장 도·소매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9%로 전년동기보다 0.9%p 상승하였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업의 매출이 증가한데다 저금리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아져 영업외수지가 개선된 데 주로 기인

<표 IV-8> 상장 건설업체 및 도·소매업체 수익성지표^{a)}

(단위 : %)

		01.1~9	02.1~9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5.4	7.2
	(매출원가/매출액)	88.7	87.7
	매출액 경상이익률	-1.5	4.2
	(금융비용/매출액)	5.6	3.4
도·소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1.9	2.1
	(매출원가/매출액)	93.1	92.1
	매출액 경상이익률	1.0	1.9
	(금융비용/매출액)	1.2	0.8

a)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중 조사대상 건설업체 및 도·소매업체 실적.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나. 재무구조

- 2002년 9월말 조사대상 상장 제조업체(1,070개)의 부채비율(부채/자기 자본)은 130.1%로 지난해말(185.7%)보다 55.6p 하락하였음

대우자동차의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 등 구조조정 영향이 반영 되었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상환한 데 주로 기인하였음

- 대우자동차의 재무구조 개선은 제조업 부채비율을 26.5p 하락시켰음

<표 IV-9> 상장 제조업체 재무구조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98말	99말	00말	02.6말	01말 ^{a)}	02.9말
부 채 비 율	299.2 (303.0) ^{b)}	199.7 (214.7)	215.3 (210.6)	132.9 (135.6)	185.7 (182.2)	130.1
자기자본비율	25.0 (24.8)	33.4 (31.8)	31.7 (32.2)	42.9 (42.4)	35.0 (35.4)	43.5

a) 2002년 9월말 기준 분기재무제표 작성대상업체의 실적치

b) ()내는 전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 조사결과
자료 :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 2002년 9월말 제조업체의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그림 IV-6> 상장 제조업체(1,070개) 부채비율 분포 추이

100%이하 100%~200% 200%~500% 500%초과
(자본잠식 포함)

2001년말	53.8	26.8	11.7	7.7
2002년 9월말	55.0	26.6	12.0	6.4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2002년 9월말 상장 제조업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본)는 33.1%로 2001년말(41.3%)보다 8.2%p 하락하였음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이 1.9조원 감소하였고, 장기차입금은 25.1조원이 감소하였음

<표 IV-10>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재무구조 관련지표

(단위 : %)

업종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01말	02.9말	01말	02.9말
제조업	185.7	130.1	41.3	33.1
음식료품	155.9	142.7	37.7	33.5
섬유제품	220.4	176.1	48.6	42.0
펄프·종이	187.3	131.7	50.2	40.7
석유정제·코크스	183.1	181.7	44.6	39.5
화학제품	148.4	130.2	41.9	39.6
고무·플라스틱	146.3	135.2	30.3	30.1
비금속광물	154.2	119.7	43.1	37.3
제1차금속	136.1	114.2	41.7	39.2
컴퓨터·사무기기	177.6	165.4	33.9	33.0
기타전기기계	105.4	100.8	29.1	31.1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	106.7	88.9	28.3	25.1
자동차	자본잠식 (171.1) ^{a)}	159.4 (155.3)	69.0 (31.6)	27.4 (24.5)
조선·기타운송장비	248.2	227.1	36.0	34.2

a) ()내는 대우자동차 제외시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 2002년 9월말 상장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수익성 개선으로 잉여금이 증가하고 차입금이 감소하여 전년말 268.3%보다 48.4%p 하락한 219.9%를 기록

- 2002년 9월말 상장 도·소매업체 부채비율은 전년말 196.7%보다 17.5%p가 하락한 179.2%를 기록

다. 성장성

- 2002년 1~9월 중 상장 제조업체의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1% 증가하여 전년동기 1.0%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음

<표 IV-11> 상장 제조업체 업종별 성장성 지표 추이

(단위 : %)

업 종	매출액증가율 ^{a)}		유형자산증가율 ^{b)}	
	01.1~9 ^{c)}	02.1~9	01.1~9 ^{c)}	02.1~9
제조업	1.0	4.1	-2.0	-2.7
음식료품	8.2	5.3	0.2	-1.5
섬유제품	-4.3	-1.8	-3.8	-7.8
펄프·종이	-3.8	4.0	-2.0	-1.3
석유정제·코크스	7.9	-16.4	-2.1	-2.1
화학제품	6.2	2.4	-0.5	-3.9
고무·플라스틱	3.6	3.8	-0.2	-6.9
비금속광물	6.1	4.3	-4.2	3.1
제1차금속	-1.4	5.4	-0.6	-1.9
컴퓨터·사무기기	-29.9	19.8	-0.6	-3.8
기타전기기계	1.6	-2.8	2.1	-3.5
전자부품·영상음향장비	-11.6	11.8	-6.0	-3.8
자동차	15.3	8.9	-0.9	-4.0
조선·기타운송장비	7.6	5.0	0.1	2.1

a) 전년동기대비

b) 전년말대비

c) 2001년 9월말 기준 분기 재무제표 작성대상업체의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분석 결과」.

- 상장 건설업체 매출액은 건설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상장 도·소매업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 -11.1%보다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4. 향후 증시 영향요인

- 현재 우리 경제는 2001년 3/4분기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경기회복 선상에서의 소순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임

2002년 가계대출 급증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소비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상반기 가계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31조원에 이름

주택가격은 2002년 급등 이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겹쳐 2002년 말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소비를 둔화시킬 것임

2003년 상반기에 미·이라크간 전쟁 우려와 베네수엘라의 파업으로 유가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켜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2003년 중반 이후에는 그동안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족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불안 요인이 제거되면 투자 주도에 의한 경기회복이 전망됨

- 2002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재 둔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의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2003년에는 중남미 경제불안, 중국위안화 절하 가능성, IT회복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잔존

2003년 미국과 유럽의 저금리 기조 지속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

2003년 세계 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02년에도 우리 주식시장은 Korea Discount에서 탈피하지 못했음

2002년 12월 10일 기준 주요국의 PER는 다음과 같음

<표 IV -12> 각국의 PER 비교

대상	러시아	인니	한국	멕시코	태국	홍콩	말편	싱가폴	다우	영국	대만	독일	일본	나스닥
PER	6.1	7.6	8.3	11.3	12.8	14.4	15.2	15.7	17.4	20.8	22.6	23.4	43.5	44.8

자료 : Bloomberg.

우리나라의 낮은 PER 배수는 전통적으로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북한과의 대치 상황, 정치적 후진성 등에 기인하였으나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정치적 후진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짐

- 그밖에 대기업이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부재해 주식 투자 매리트를 반감시키고 있음

2003년 상반기의 국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소비둔화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임

2003년 하반기 국내 설비투자 증가와 세계의 PC 교체 수요에 따른 IT 경기 회복 및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음

○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과 주식시장의 업그레이드는 IT 제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때 가능함

2002년 우리 경제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부분은 반도체, 통신기기 등 IT 제품 분야였음

<부 록> 증권시장 일지

1월

<2일>

- 증권거래소, 신주인수권증서 시장개장

<4일>

- 금감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외국인의 call option 권리행사 또는 put option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한도초과 허용

주식옵션 결제용 한도초과 주식매수 허용

<3일>

- 증권거래소, 채권상장 온라인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운용방안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은 검찰에 통보되고 최소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현재 정직을 받을 경우, 2년간 취업을 제한하나 이를 5년으로 연장, 사실상 증권업계에서 영구 추방할 방침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해당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 같은 행위가 여러 점포에서 발생하면 증권사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짐

<12일>

- 금융감독원·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공모주 배정 물량	- 우리사주조합: 20% -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 기관투자가: 15%(코스닥 10%) -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현행 유지 - 내년부터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점진적 축소 - 고수익펀드 배정물량 내년부터 축소, 2005년에는 완전 폐지
시장 구성	- 상장·등록 후 1개월간 주간 증권사가 주가를 공모가 대비 80%이상 유지	- 상장·등록 후 일정기간 일반 청약자는 공모주식을 주간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부여(방안 확정 즉시 시행)
공모가 산정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이 제시한 평균가격의 -30%~+30% 이내에서 결정	- 올해는 현행 방식 유지 - 내년에는 수요예측가격의 -50 ~ +50% 이내에서 산정 - 2004년부터는 주간증권사가 공모가격을 자율적으로 산정
기타	- 공모주청약 후 최초 거래일까지의 기간단축(현재 1개월 소요) - 시장구성기간 중 발행주간 증권사는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 추천 금지	

<15일>

-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상장기업의 시장 퇴출기준 관련 규정 개정 발표

상장기업 퇴출 기준 변화 내용

사 유	종 전	변 경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제출기한 이후 1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서 같은 의견 받으면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감사의견 한정	제재조치 없었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한정 의견 받으면 상장폐지

<23일>

- 한국ECN증권, 올 4월 전종목 확대방침 발표

4월 1일부터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 우선주를 제외한 거래소·코스닥종목이 ECN에서 거래 가능

<26일>

- 재정부, 증권거래법 개정(2월 1일 시행)

증권거래 준비금제도 폐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이상매매관련 자율규제기능 강화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 강화

- 재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사유 확대

<30일>

- 증권거래소, 국내최초 교보-메리츠CR리츠 상장

교보-메리츠CR리츠는 주식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후 재임대하는 조건부방식(Sale and Lease Back)으로 운용할 계획

- 금융감독원, 회계감사기준 강화 방침 발표

2002년부터 강화된 기업회계

- CPA 부적정 · 의견거절시 즉시 상장 폐지
- 회계법인 재심리비율 25%→80% 강화
- 미국 엔론사태 후 심리대폭 강화
- 기업회계 감사시 3인1조에서 4인1조로 보강

2월

<9일>

○ 재경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허용(2002년 7월 1일 시행)

증권회사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13일>

○ 금감원, 증시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마련

4월부터 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실시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해 1년 이상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제한

분식위험이 높은 계정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감리제도 도입

<25일>

○ 증권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 개장

은행과 증권사만 REPO 시장에 참여 가능, 투신·보험·연기금 등은 증권사를 통해 간접참여 할 수 있음

3월

<1일>

○ 증권거래소, 감사의견 관련 공시에 대한 시장조치 기준 발표

감사의견 부적정 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공시시점부터 매매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

<6일>

○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비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됨

<7일>

○ 금감원, 공시규정 강화 발표

기업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종료 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통보하도록 공시규정 강화

○ 금감원, 증권저축 가입자의 거래 가능 범위 확대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 가입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거래소와 코스닥에 국한되었던 것을 ECN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20일>

- 금감위,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및 애널리스트 등이 자신이 추천한 주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공시(2002년 5월 1일 시행)

<21일>

- 증권거래소, e-mail로 증시정보 제공 발표
- 증권거래소, 선물·옵션 거래량 세계 1위 발표
- 채경부, 상장지수펀드(ETF) 7월 도입 예정 발표

4월

<1일>

-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개정
 - 협회중개시장에 시간외 대량매매제도의 도입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3일>

- 증권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선정 발표

코스피(KOSPI)200지수 운용사에는 LG투신운용과 삼성투신운용, 코스피50지수 운용사에는 제일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컨소시엄이 선정됨

<10일>

-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옵션 거래량(1,155만 6,281계약) 최고치 경신

- 증권·투신업계, 개별주식옵션시장 참여 가능(다음달 시행)

8일 증권투신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투신권은 표준약관 변경으로 옵션종목별로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주식옵션 투자가 가능

<12일>

- 금감위, 한국선물거래소의 국채선물옵션 신규 상장 승인 예정 발표

상장될 예정인 국채선물옵션은 만기일전이라도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미국형으로 설계

이달 중순부터 모의시장 운영한 뒤 4월 10일부터 정식 상장

- 증권거래소, 지수 산출방식 개편발표

보통주와 구형우선주를 더해 산출하던 종합주가지수를 6월 14일부터 구형우선주를 제외하고 보통주 주식수만 산출하기로 변경함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27일>

- 재경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이익규모가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재경부,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7월 28일 시행)

표준신탁약관 제정권을 투자신탁협회로 이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shadow voting 의무 완화

- 재경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7월 28일 시행)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허용

5월

<9일>

- 증권거래소, 불공정 호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10일>

- 선물거래소, 국채선물옵션 시장 개장

<15일>

- 금감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행

금융기관 검사관련 정보수집 의무부서의 확대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문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의 계약직 직원이 고용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적용

<19일>

- 금감원·증권업협회, 애널리스트 배우자 주식매매 공개 방침 발표

이러한 내용을 협회규정에 포함시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일>

- 금감원, 공모주식 초과배정제 도입 추진

<26일>

- 재경부, 선물 불공정 행위 처벌기준 강화법 개정 추진 발표

주식시장뿐 아니라 선물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됨

선물거래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정하게 이익을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27일>

○ 거래소·코스닥, 전자공시시스템 통합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각각 별도로 공시되던 공시자료 204종이 코스닥은 6월1일, 거래소는 7월1일부터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인 다투(<http://dart.fss.or.kr/>)에 통합되어 제공됨

<28일>

○ 금감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유상증자시 시가가 없는 주식의 기준주가 산정방법 개선

-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기준주가를 산정

유상증자시 시가할인을 제한의 예외인정 대상에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를 추가

<31일>

○ 예탁원,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개정(6월 3일 시행)

주식의 대차거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대차거래 참가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도 참가 허용

6월

<19일>

- 재정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사 전화주문 녹음 의무화

<24일>

- 금감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제도를 개선, 단계적 시행

주식거래제도 개선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거래소	관리종목거래를 30분 단위에서 장중내내로 변경	7월 1일
	동시호가 때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등 공개	9월30일
	상장주식 5만주 미만 종목, 공매도 금지	7월15일
코스닥	가격없이 수량 주문만 내는 시장가 호가 도입	7월 1일
	신용거래 대주 때는 공매도 주문 허용	7월 1일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 때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 가능	7월 1일

<28일>

- 은행, 다음달부터 주5일제 실시

보험, 증권, 투신, 신탁,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토요일에도 정상 영업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7월 1일 시행)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을 단일가매매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한 집속매매로 변경

저유동성 종목(5만주미만) 매도시 위탁증거금으로 매도증권 전부를 징수

○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개정(7월 1일 시행)

코스닥시장에도 시장가호가제도 도입

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도 공매도호가를 허용

7월

<11일>

○ 재경부, 국채지표종목 거래시 장내시장 통한 매매 방침 발표
(올 10월 시행 예정)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는 3년만기 국고채 등 국채지표종목 거래시, 반드시 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해야 함

투신·연기금·보험 등 국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의 매매 허용

현재 당일인 채권 결제일은 거래 후 1일 (T+1)로 연장됨
(2003년 6월 시행 예정)

<16일>

- 금융감독원, 투자신탁회사의 개별주식옵션거래 허용 발표
(오는 7월 28일 시행)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투신사의 개별주식옵션 투자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하기 함

<22일>

- 코스닥위원회, 코스닥등록기업이 거래소로 옮길 경우 등록취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기업등록에 따른 시장관리 및 전산인프라 구축비용과 5~6개월씩 걸리는 등록 업무 추진 기회비용 등을 감안, 등록한지 1~2년 만에 등록을 취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 부과 방침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후 내년 시행 예정

<24일>

- 증권거래소, 주식수량이 8월 9일 이후 새로 상장되는 결제 월부터 주식 옵션 거래단위 10주로 단일화 방침

<26일>

- 증권거래소, 선물·옵션 업무규정 개정(오는 8월 9일 시행)

주식옵션 1계약의 권리행사로 인도하게 되는 기초주권수량을 100주에서 10주로 축소하여 주식옵션의 유동성 제고

8월

<4일>

○ 금감위, 사이버주식매매감시 대폭 강화 예정

온라인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허수 주문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PDA(개인휴대단말기)를 통한 사이버 주식매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현재 온라인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작업을 통해 조사하며 관련 자료도 1년 동안만 보관하고 있어 1년이 지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어려움

<9일>

○ 증권거래소, 지수 산출주기 10초로 단축

8월 19일부터 KOSPI · KOSPI200 · 100 · 50등 모든 주가지수의 산출주기를 현행 30초에서 10초로 단축

<14일>

○ 금융감독원, 기업회계공시 대폭 강화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 등록된 기업의 회계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회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회계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명시토록 한 반면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회계 처리 기준을 단순화 함

재무정보 공시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요약 재무정보의 공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방침

<21일>

○ 금감위, 10% 한도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마련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 마련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정성 기준 충족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29일>

○ 증권거래소, 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되고 배당결정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등 배당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

액면가로 공시되던 배당률을 시가배당률로 바꾸고 현행 연2회인 중간배당을 연4회까지 가능하도록 검토

9월

<1일>

- 금감위·증권거래소,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고 오전 동시호가 시간에도 대량매매를 허용(9월 14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시 간	3시10분~3시40분	3시10분~4시
대량매매 가격변동폭	±5%	±7%
아침 동시호가	시간외 대량매매 불가능	시간외 대량매매 허용

<13일>

- 증권거래소, 한정의견·자본전액잠식을 수시공시에 포함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았거나 자본금이 전액(지주회사는 75% 이상)잠식됐을 때는 즉시 공시토록 하는 규정을 16일부터 시행

스톡옵션 행사 주식수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이거나 해외에서 전환사채(CB)발행을 완료했을 때도 공시

11월 1일부터 기업이 중요 경영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증권업협회, 장중 중요사항 발생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제도 규정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시 장중 동시호가 처리가 되지 않던 전산상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재개하도록 함

<15일>

○ 금감위·증권거래소, 수시공시업무 거래소·코스닥에 이관

영업 양수도와 합병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수시공시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으로 이관

이에 따라 기업들의 수시공시 내용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심사해 규정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됨

공시제도 개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

<24일>

○ 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소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존의 거래건당 거래금액의 2.5/1,000,000을 거래소 수수료로 부과 하던 것을 2002년 10월 1일부터 3년간 면제

<25일>

○ 증권거래소, 증권사 수수료 3개월간 면제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면제

증권사의 수수료 절감효과는 774억원으로 추정(증권거래소 540억원, 증권업협회 96억원, 증권예탁원 138억원 등)

증권거래소는 올 상반기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1,0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99억원)에 비해 76% 감소한데다 하반기 들어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수수료를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함

<27일>

○ 증권거래소, 동시호가 예상체결가격 9월 30일부터 실시간 공개

시초가와 종가 등을 결정하는 단일가 매매(동시호가)시 예상 체결가격과 수량 등 구체적인 호가 정보를 공개

시초가 접수시에는 오전 8시10분부터, 종가 때는 오후 2시50분부터 예상 체결가격과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공표

매수·매도호가의 격차가 커 매매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상 최우선 매도·매수호가와 잔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현행 단일가 매매시 제공됐던 매도·매수별 총호가 수량에 대한 정보 공개는 없애기로 함

<29일>

○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 주식 시간외거래 20분 연장

10월 14일부터 주식투자자의 매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 주식거래시간을 현행 오후 3시40분에서 4시까지로 20분 연장

자사주 체결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정주문 가격의 범위도 제한함

대량 주식거래시 가격폭 범위도 종가기준 $\pm 5\%$ (당일고·저가 범위안)에서 $\pm 7\%$ (당일상·하한가 범위안)로 확대

○ 금융감독위원회, 신규상장 소요시간 단축

신규상장시 소요기간은 현행 주금납입 후 14일에서 5일로, 신주의 상장은 납입후 15일에서 1일로, 변경상장은 변경일의 5주이내에서 2주전으로 각각 조정돼 30일부터 시행

10월

<1일>

○ 증권업협회, 제3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 도입

1일 가격변동 제한폭을 매매기준가격(직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대비 $\pm 50\%$ 로 설정

<14일>

○ 증권거래소, 상장지수펀드 첫 상장거래

ETE상장내역

종목명	KODEX200	KOSEF	KODEX50	KOSEF50
발행증권수(좌)	22,600,000	14,700,000	8,700,000	3,000,000
주당순자산가치	7,386.00	7,384.29	5,471.31	5,469.67
기준가격	7,390	7,390	5,480	5,470
신탁재산초액	1,669억	1,085억	476억	164억
추적대상지수	KOSPI200	KOSPI200	KOSPI50	KOSPI50
운용회사	삼성투신운용	LG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제일투신운용
코드(단축)	A69500	A69660	A69600	A69550

ETF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측면을 고려해 증권거래
세(거래 금액의 0.3%)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 상장 시초가는 이들 종목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주문을 받아 결정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15일>

○ 증권거래소, 신주상장 기간 대폭 단축

구 분	유형	상장소요기간(평균)		
		변경전	변경후	단축기간
신주상장	- 유상증자	15일	1일	14일
	- 무상증자	25일	10일	15일
	- 주식배당	28일	10일	18일
	- 회사분할·합병	17일	10일	7일
변경상장	- 주식분할·병합	17일	10일	7일
	- 상호변경	16일	2일	14일
일괄상장	- CB, BW 등	12일	5일	7일
신주인수권 상장	- 신주인수권증권	12일	2일	10일

<17일>

○ 금감위, 직접공시제도 도입 기업책임 강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방 식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수시공시 감독체계	- 금감위와 거래소·코스닥 시장이 중복 감독 - 관련규정이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 거래소·증권업협회의 시장규정으로 산재	-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적인 대응 곤란	- 금감위는 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특수 공시 관장 - 거래소·증권업협회는 수시공시 담당
수시공시 감독방식	- 열거주의 규제방식 - 기업외 영업상 기밀 불인정	-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시의무 없음 - 기업이익 침해	- 열거주의에서 예시적 포괄주의로 전환 - 영업 기밀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직접공시	- 간접공시방식 채택(기업이 금감위, 거래소 등에 신고하면 심사후 공표)	- 신속성 떨어지고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있음 - 기업 자율과 창의성 무시	- 직접공시제도 도입(기업이 언론 등에 주도적으로 공표) - 사후 심사 후 엄중한 시장 조치

11월

<1일>

○ 증권거래소, 공정공시 6회 위반시 퇴출

일반 공시위반은 1년 내 2회 공시의무 위반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지정 후 6개월내(코스닥은 1년) 추가 위반하면 상장폐지되는 3진 아웃제를 적용

반면, 공정공시제도는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을 일반공시 1회 위반으로 간주하는 6진 아웃제가 적용

공정공시제 위반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2003년 초부터 시행
공정공시제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각종 증시 소문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

<8일>

○ 금감위, 고객예탁금 신탁방식 운용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및 선물투자를 위해 증권상 맡긴 예탁금이 오는 12월부터 신탁 방식으로 운용

구 분	현행방식	변경방식
운용방식	예치방식	신탁관리
투자대상	예금 및 국공채	예금 및 국공채
예탁금계정	증권금융 고유자산	신탁자산
운용수익	확정금리+ α	실적배당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20일>

○ 금감위·금융감독원, 자본전액잠식 1년째 상장폐지

상장기업도 코스닥등록 기업처럼 사업연도말에 자본이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하는 등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시기를 앞당겨, 증시의 건전 발전을 위해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을 코스닥 등록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상장사 퇴출요건 개선안

현행요건	개선안
자본잠식 2년	자본잠식 1년
1년간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의 1%미만	1년간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의 3%미만
주가와 관련된 퇴출기준 없음	상장유지 위한 최소 주가 요건 도입
2년 연속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신속퇴출 제도 검토

<28일>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시장총액 20~30억 이하때 퇴출

내년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은 시가총액이 20~30억원, 코스닥 등록 기업은 10억원을 밑돌면 퇴출

논란을 빚었던 코스닥기업에 대한 거래소 이전비용부과제도는 등록한 지 5년이 안된 기업에만 적용

<29일>

○ 금융감독원, M&A정보 사전공시 의무화

상장·등록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추진할 때 중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특히 인수합병과 관련된 대주주간 사전 지분교환 약정 등도 공개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경우 대주주의 지분매집 단계에서부터 이를 공시하도록 함

공시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인수합병(M&A)	중요내용에 대한 공시 불충분	대주주간 지분교환 약정 등도 사전 공시
상장폐지	사후적인 결과만 공시의무	주식매집 단계에서 공시
포괄적 주식교환	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신고서 제출 의무화
연결공시 제도	없음	신설
공시내용 및 양식	어려운 용어가 많고 내용도 빈약	알기쉬운 용어로 상세히 공시토록 정비

12월

<2일>

- 재경부,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중개 등의 매매가격 신설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을 이용한 매매 중개를 허용

- 가격변동폭을 종가기준 $\pm 5\%$ 이내로 하고, 동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 5일>

○ 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제도 개선

구 분	개 선
일반 감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 감리종목 지정요건 중 기간을 최근 5일간 75% 이상 주가 상승이 3일 연속에서 2일 연속으로 단축 - 시가기준가종목이 상장 후 30일 미만시 그 경과한 기간 중 최고 주가일 것을 요건으로 함
일반 감리종목 해제요건 개선	-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일정기간(3일간) 경과 후 주가급등의 진정 또는 하락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해제
우선주 감리종목 매매거래 정지요건 개선	- 2차 이상 매매거래 정지의 요건에 1차 매매거래정지해제 후 최근의 주가상승률을 반영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13일>

○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에 대한 관리종목지정기준 신설(2003사업연도의 반기검토보고서부터 적용), 영업활동이 정지된 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등을 개정

○ 증권업협회, 등록취소제도 개선(퇴출기준강화)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퇴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상시 퇴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제도를 개선

구 분	현 행	개 정
① 액면가액 일정비율미달	○ 액면가의 2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 액면가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② 시가총액 미달	(신 설)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 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 종목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 이 10억원 미만시 퇴출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이후 1개월내 미제출시 퇴출	(현행과 동일) - 이후 10일내 미제출시 퇴출
④ 영업활동 중단	○ 주된 영업활동 등 중단시 관리종목 지정 - 6월간 지속시 퇴출	(현행과 동일) - 3월간 지속시 퇴출
⑤ 영업실적	(신 설)	○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발생 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평 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 악 화시 관리종목 지정 -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⑥ 회사정리 절차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 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 정 - 매1년마다 적격성 심사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신청시 퇴출 ※ 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 은 유예기간 부여후 정 리절차를 벗어나지 못하 는 경우 퇴출

<17일>

○ 증권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 범위 확대 및 가
격요건 완화

정부의 허가와 금감위의 승인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요건
의 적용도 배제함

<18일>

○ 금감위, ETF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신용공여대상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장외결제일 제도를 변경

- 관행화 된 당일 결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을 T+0~T+14에서 T+1~T+30일로 변경

참 고 문 헌

산업은행, 2002, 『산은조사월보』, 12월호.

산업자원부, 2003, 『2002년 수출입실적 평가』, 1, 2.

재정부, 『주요경제지표』, 각호.

_____, 『월간경제 동향』, 각호.

_____, 『총대외지불부담현황』, 각호.

전경련, 『기업경기실사지수』, 각호.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_____, 『소비자물가 동향』, 각호.

_____, 『고용 동향』, 각호.

한국은행, 2002, 『2003년 경제전망』, 12, 9.

_____, 2002, 『기업경영분석』, 12, 17.

_____, 2002,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2003년 전망』, 12월호.

_____, 2003, 『세계경제전망과 주요 현안』, 1월호.

_____, 『국제수지 동향』, 각호.

_____, 『금융시장 동향』, 각호.

2002년 연간 증시 동향

_____,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 각호.

_____, 『생산자물가 동향』, 각호.

_____, 『수출입물가 동향』, 각호.

_____, 『외환보유액』, 각호.

_____, 『주간해외경제』, 각호.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SK증권, 2002, 『2003년 국내외 경제, 채권, 주식시장 전망』, 12, 16.

BondWeb, 2003, 『BondWeb annual(2003)』, 1, 7.

DRI-WEFA, 2002, *World Economic Outlook*, Q4.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IMF, 2002, 『*World Economic Outlook*』, 12월호.

KSRI, 『월간 증권제도 동향』, 각호.

KDI, 2003, 『2002년 세계경제 흐름과 2003년 전망』, 1월호.

KIEP, 2002, 『2003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12월호.

OECD,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OECD, 2002, *Financial Market Trends*, No. 81 - 83.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본드웹, <http://www.bondweb.c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통계청, <http://www.nos.go.kr/>

투자신탁협회, <http://www.kitca.or.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문 의 >

작성책임자	오승현 연구위원	☎ : 3771-0661 / Fax : 3771-0658
		Email : eliot@ksri.org
	송치승 연구위원	☎ : 3771-0624 / Fax : 3771-0630
		Email : cssong@ksri.org
작 성 자	유윤주 연구원	☎ : 3771-0626 / Fax : 3771-0658
		Email : improve@ksri.org
	박연정 연구원	☎ : 3771-0653 / Fax : 3771-0630
		Email : specialist@ksri.org
기 타 문 의	김정숙 연구조원	☎ : 3771-0637 / Fax : 3771-0658
		Email : nrjs@ksri.org
증권연구원 홈페이지		Email : www.ksri.org